

# 2017 부산광역시 청소년정책지표조사 결과

## 1.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조사대상의 표본 크기는 총 1,271명이며,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성별)

구분	N	비율(%)
남자	605	47.6
여자	666	52.4
계	1271	100.0

성별에 따라서 '남자 청소년'이 605명(47.6%), '여자 청소년'이 666명(52.4%)으로 남녀의 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표 2>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학교급)

구분	N	비율(%)
중학교	594	46.7
고등학교	677	53.3
계	1271	100.0

학교 급별로 살펴보면, '중학생'이 594명(46.7%), '고등학생'이 677명(53.3%)으로 나타났다.

<표 3>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부모님 동거 여부)

구분	N	비율(%)
부모님과 함께 거주	1063	83.6
그 외	208	16.4
계	1271	100

가족거주형태별로 살펴보면 '아버지, 어머니 모두와 함께 거주하는 청소년'은 1063명(83.6%), '그 외'의 경우가 208명(16.4%)으로 나타났다.

<표 4> 조사대상의 전체 구성원 지역별, 학교급별, 성별 (명, (%))

		전체	강서구	금정구	기장군	남구	동구	동래구	부산진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수영구	연제구	영도구	중구	해운대구
초·중·고	남자	292 (49.2)	22 (47.8)	0 (0.0)	17 (50.0)	25 (56.8)	0 (0.0)	44 (1000)	0 (0.0)	0 (0.0)	42 (1000)	11 (32.4)	41 (1000)	12 (34.3)	15 (46.9)	28 (58.3)	35 (1000)	0 (0.0)
	여자	302 (50.8)	24 (52.2)	40 (1000)	17 (50.0)	19 (43.2)	36 (1000)	0 (0.0)	47 (1000)	36 (1000)	0 (0.0)	23 (67.6)	0 (0.0)	23 (65.7)	17 (53.1)	20 (41.7)	0 (0.0)	0 (0.0)
고·대학	남자	313 (46.2)	41 (91.1)	4 (10.8)	20 (43.5)	32 (82.1)	16 (45.7)	0 (0.0)	1 (2.1)	25 (50.0)	39 (95.1)	38 (1000)	23 (52.3)	50 (1000)	22 (42.3)	0 (0.0)	2 (5.6)	0 (0.0)
	여자	364 (53.8)	4 (8.9)	33 (89.2)	26 (56.5)	7 (17.9)	19 (54.3)	44 (1000)	46 (97.9)	25 (50.0)	2 (4.9)	0 (0.0)	21 (47.7)	0 (0.0)	30 (57.7)	24 (1000)	34 (94.4)	49 (1000)
전체	남자	605 (47.6)	63 (69.2)	4 (5.2)	37 (46.3)	57 (68.7)	16 (22.5)	44 (50.0)	1 (1.1)	25 (29.1)	81 (97.6)	49 (68.1)	64 (75.3)	62 (72.9)	37 (44.0)	28 (38.9)	37 (52.1)	0 (0.0)
	여자	666 (52.4)	28 (30.8)	73 (94.8)	43 (53.8)	26 (31.3)	55 (77.5)	44 (50.0)	93 (98.9)	61 (70.9)	2 (2.4)	23 (31.9)	21 (24.7)	23 (27.1)	47 (56.0)	44 (61.1)	34 (47.9)	49 (1000)

지역, 학교급, 성별에 따른 연구 대상의 수를 나타낸다. 금정구는 남자청소년 4명(5.2%), 여자청소년 73명(94.8%), 부산진구는 남자청소년 1명(1.1%), 여자청소년 93명(98.9%), 해운대구는 남자청소년 0명(0.0%), 여자청소년 49명(100.0%)으로 성비가 한 곳으로 치우치는 것을 볼 수 있다.

## 2. 청소년의 생활

<표 5> 최근 1년간의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경험 (다중응답)

구분	전체	N	비율(%)
음악연주회(콘서트) 관람	1266	471	16.2
연극, 마당극, 뮤지컬 관람		364	12.5
무용 관람		116	4.0
영화 관람		1077	37.1
박물관, 미술관 관람		503	17.3
스포츠 관람		290	10.0
기타		7	0.2
관람한적 없음		76	2.6
계		2904	100.0

'영화 관람'에서 37.1%(1077명)로 가장 높았고, '박물관, 미술관관람', '음악, 연주회관람'은 각각 17.3%(503명), 16.2%(471명)로 나타났다. 반면 '기타', '관람한적 없음'은 각각 0.2%(7명), 2.6%(76명)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6> 최근 1년간의 청소년 문화예술활동별 경험 횟수 (명, (%))

구분	참여횟수					
	전체	N	1년에 1회	1년에 2~3회	1년에 4~5회	1년에 6회 이상
음악연주회(콘서트) 관람	연극, 마당극, 뮤지컬 관람	605	415 (68.6)	148 (24.5)	33 (5.5)	9 (1.5)
		500	344 (68.8)	140 (28.0)	10 (2.0)	6 (1.2)
		300	235 (78.3)	46 (15.3)	7 (2.3)	12 (4.0)
		1266	1097 (86.6)	214 (16.9)	312 (24.6)	504 (39.8)
영화 관람	박물관, 미술관 관람	626	332 (53)	246 (39.3)	32 (5.1)	16 (2.6)
		449	222 (49.4)	129 (28.7)	50 (11.1)	48 (10.7)
스포츠 관람	기타	24	16 (66.7)	4 (16.7)	1 (4.2)	3 (12.5)

‘음악연주회(콘서트) 관람’ 빈도를 살펴보면, '1년에 1회'가 68.6%(415명)으로 가장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1년에 2~3회'(24.5%, 148명), '1년에 4~5회'(5.5%, 33명), '1년에 6회이상'(1.5%, 9명) 순으로 나타났다. '연극, 마당극, 뮤지컬 관람'한 빈도를 살펴보면, '1년에 1회'가 68.8%(344명)으로 가장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1년에 2~3회'(28.0%, 140명), '1년에 4~5회'(2.0%, 10명), '1년에 6회이상'(1.2%, 6명) 순으로 나타났다. '무용 관람'한 빈도를 살펴보면, '1년에 1회'가 78.3%(235명)으로 가장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1년에 2~3회'(15.3%, 46명), '1년에 4~5회'(2.3%, 7명), '1년에 6회이상'(4.0%, 12명) 순으로 나타났다. '영화 관람'한 빈도를 살펴보면, '1년에 6회이상'이 45.9%(504명)으로 가장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1년에 4~5회'(28.4%, 312명), '1년에 2~3회'(19.5%, 214명), '1년에 1회'(6.1%, 67명) 순으로 나타났다. '박물관, 미술관 관람'한 빈도를 살펴보면, '1년에 1회'가 53.0%(332명)으로 가장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1년에 2~3회'(39.3%, 246명), '1년에 4~5회'(5.1%, 32명), '1년에 6회이상'(2.6%, 16명) 순으로 나타났다. '스포츠 관람'한 빈도를 살펴보면, '1년에 1회'가 49.4%(222명)으로 가장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1년에 2~3회'(28.7%, 129명), '1년에 4~5회'(11.1%, 50명), '1년에 6회이상'(10.7%, 48명)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의 경우, '1년에 1회'가 66.7%(16명)으로 가장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1년에 2~3회'(16.7%, 4명), '1년에 6회이상'(12.5%, 3명), '1년에 4~5회'(4.2%, 1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7> 평일 방과 후 주 여가활동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합계	비율(%)
TV, 비디오 시청	94	129	115	655	8.8
집에서 인터넷 검색 및 활동	45	51	53	290	3.9
집에서 컴퓨터 게임하기	87	65	67	458	6.2
스마트폰 게임하기	64	108	92	500	6.7
스마트폰 SNS 활동	285	218	136	1427	19.2
라디오나 음악 듣기	20	84	77	305	4.1
독서하기	10	32	47	141	1.9
집에서 가족이나 친구와 대화	14	34	65	175	2.4
집안일	7	14	27	76	1.0
그냥 쉬거나 잠자기	57	149	227	696	9.3
집에서 숙제 등 공부	53	87	92	425	5.7
방과 후 학교	18	22	12	110	1.5
학교에서 자율학습	142	29	17	501	6.7
학원이나 과외	260	118	98	1114	15.0
청소년 시설 프로그램 참여	0	2	0	4	0.1
봉사활동 참여	0	2	5	9	0.1
종교활동 참여	4	4	4	24	0.3
친구들과 PC방, 노래방 가기	57	72	76	391	5.3
아르바이트	5	3	4	25	0.3
집 근처 공터나 시내 배회	0	6	8	20	0.3
기타	20	12	16	100	1.3
계	1242	1241	1238	7446	100.0

순위형 다중응답으로 설문하였으므로 1순위, 2순위, 3순위에 대해 중요도 순으로 3, 2, 1씩 가중치를 주어 분석하였다. '스마트폰 SNS 활동'이 19.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학원이나 과외'가 15.0%, '그냥 쉬거나 잠자기'가 9.3%, 'TV, 비디오 시청'가 8.8%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청소년 시설 프로그램 참여'와 '종교활동 참여'가 0.1%로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종교활동 참여', '아르바이트', '집 근처 공터나 시내 배회'도 0.3%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표 8> 주말 및 휴일 주 여가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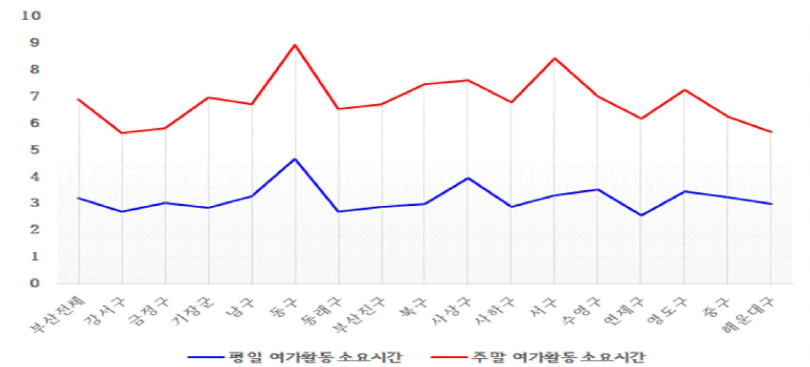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합계	비율(%)
TV/DVD 시청	172	184	151	1035	13.8
자기 개발	108	59	58	500	6.7
여행	18	18	30	120	1.6
문화예술관람	31	47	74	261	3.5
스포츠관람	8	17	15	73	1.0
스포츠활동	46	63	38	302	4.0
게임활동	214	152	97	1043	13.9
인터넷/스마트폰활동	233	278	160	1415	18.9
독서활동	14	22	49	135	1.8
창작적 취미	23	55	52	231	3.1
가사일	5	14	21	64	0.9
휴식	135	128	240	901	12.0
친구와의 만남/대화	174	182	207	1093	14.6
종교활동	39	18	28	181	2.4
봉사활동	9	5	21	58	0.8
기타	25	6	6	93	1.2
계	1254	1248	1247	7505	100.0

순위형 다중응답으로 설문하였으므로 1순위, 2순위, 3순위에 대해 중요도 순으로 3, 2, 1씩 가중치를 주어 분석하였다. '인터넷/스마트폰활동'이 18.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친구와의 만남/대화'가 14.6%, '게임활동'이 13.9%, 'TV/DVD 시청'이 13.8%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봉사활동'이 0.8%로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표 9> 평일과 주말/휴일 여가활동 소요시간 (단위: 시간)

	전체	강서구	금정구	기장군	남구	동구	동래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수영구	연제구	영도구	중구	해운대구	
평일	3.18	2.68	3.03	2.85	3.27	4.68	2.7	2.88	2.99	3.95	2.86	3.31	3.53	2.55	3.45	3.24	2.99
주말	6.89	5.63	5.83	6.96	6.70	8.94	6.52	6.7	7.46	7.59	6.79	8.42	7.00	6.18	7.25	6.26	5.68

주말에 여가활동 소요시간을 살펴본 결과, 부산 전체의 평일 여가시간 평균은 '3.18시간', 주말/휴일 여가시간 평균은 '6.89시간' 정도로 평일과 주말/휴일 여가시간 차이는 대략 4시간 정도 차를 보이고 있다. 16개 구군별 여가활동 소요시간을 보면, 모든 지역에서 주말 여가활동의 소요시간이 평일 여가활동 소요시간보다 길며, 대략적으로 3-5시간 정도 차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 평일과 주말/휴일 여가활동 소요시간 (단위: 시간)

<표 10>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활동

구분	N	비율(%)
TV, 비디오 시청	199	5.4
자기개발	308	8.3
여행	558	15.0
문화예술 관람	314	8.4
스포츠 관람	112	3.0
스포츠 활동	291	7.8
게임 활동	288	7.7
인터넷 및 스마트폰 활동	205	5.5
독서활동	133	3.6
창작적 취미	352	9.5
가사일	15	0.4
휴식	457	12.3
친구와의 만남/대화	417	11.2
종교 활동	29	0.8
봉사 활동	24	0.6
기타	16	0.4
계	3718	100.0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활동 중 가장 높은 것은 '여행'으로 15.0%(558명)이다. 다음으로 '휴식', '친구와의 만남/대화', '창작적 취미'가 각각 12.3%(457명), 11.2%(417명), 9.5%(352명)를 차지한다. 반면에 '가사일', '기타'가 0.4%로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표 11> 주말/휴일 및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활동의 순위 (복수응답, 응답케이스 기준 %)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전체	주말/휴일 인터넷 및 스마트폰 활동 (18.6)	인터넷 및 스마트폰 활동(22.3)	휴식(19.2)
	향후 여행 (44.9)	휴식(36.8)	친구와의 만남/대화(33.5)
강서구	주말/휴일 게임활동(18.7)	인터넷 및 스마트폰 활동(23.1)	휴식(18.7)
	향후 여행(41.8)	스포츠 활동(34.1)	친구와의 만남/대화(31.9)
금정구	주말/휴일 인터넷 및 스마트폰 활동 (28.6)	인터넷 및 스마트폰 활동(19.5)	휴식(19.5)
	향후 여행 (46.8)	휴식(36.4)	자기개발, 창작적취미(35.1)
기장군	주말/휴일 휴식 (22.5)	인터넷 및 스마트폰 활동(30)	휴식(25.6)
	향후 여행 (51.3)	휴식(43.8)	문화예술 관람(36.3)
남구	주말/휴일 게임활동 (32.9)	인터넷 및 스마트폰 활동(25)	휴식(27.3)
	향후 휴식 (48.1)	여행, 친구와의 만남/대화(40.7)	게임활동(33.3)
동구	주말/휴일 친구와의 만남/대화 (25.4)	인터넷 및 스마트폰 활동(18.3)	휴식(22.9)
	향후 휴식 (46.5)	여행(39.4)	친구와의 만남/대화(36.6)
동래구	주말/휴일 게임활동 (19.3)	인터넷 및 스마트폰 활동(18.2)	휴식(19.5)
	향후 여행 (43.7)	휴식(33.3)	자기개발(29.9)
부산진구	주말/휴일 인터넷 및 스마트폰 활동 (23.3)	인터넷 및 스마트폰 활동(23.3)	휴식(18.9)
	향후 친구와의 만남/대화, 창작적 취미 (42.5)	여행(38.4)	문화예술관람(35.6)
북구	주말/휴일 인터넷 및 스마트폰 활동 (19.8)	인터넷 및 스마트폰 활동(23.5)	친구와의 만남/대화(20)
	향후 여행 (43.5)	휴식(36.5)	스포츠 활동, 창작적취미(30.6)
사상구	주말/휴일 게임활동 (25.3)	게임활동(19.3)	TV시청 및 DVD시청(16.9)
	향후 여행 (41)	휴식(36.1)	친구와의 만남/대화(34.9)
사하구	주말/휴일 게임활동 (23.6)	인터넷 및 스마트폰 활동(22.5)	휴식(19.4)
	향후 여행, 휴식 (41.7)	친구와의 만남/대화(37.5)	창작적 취미(34.7)
서구	주말/휴일 게임활동 (23.8)	인터넷 및 스마트폰 활동(22.5)	친구와의 만남/대화(20.3)
	향후 여행 (54.8)	자기개발(29.8)	게임활동, 친구와의 만남/대화(28.6)
수영구	주말/휴일 게임활동 (23.8)	인터넷 및 스마트폰 활동(24.4)	휴식(21.4)
	향후 자기개발 (38.1)	여행(36.9)	휴식(32.1)
연제구	주말/휴일 인터넷 및 스마트폰 활동 (21.4)	인터넷 및 스마트폰 활동(25)	휴식(20.5)
	향후 여행 (50)	휴식(35.7)	친구와의 만남/대화(32.1)
영도구	주말/휴일 인터넷 및 스마트폰 활동 (25)	TV시청 및 DVD시청(22.5)	휴식(23.6)
	향후 여행 (50.7)	친구와의 만남/대화(45.1)	창작적 취미(33.8)
중구	주말/휴일 인터넷 및 스마트폰 활동, TV시청 및 DVD시청 (19.7)	게임활동(21.4)	친구와의 만남/대화(20)
	향후 여행 (49.3)	친구와의 만남/대화(38)	창작적 취미, 휴식(36.6)
해운대구	주말/휴일 자기개발 (32.7)	인터넷 및 스마트폰 활동(36.7)	독서활동(22.4)
	향후 여행, 문화예술 관람 (51)	휴식(44.9)	창작적 취미(38.8)

‘TV시청 및 DVD 시청’, ‘자기개발’, ‘여행’, ‘문화예술 관람’, ‘스포츠 관람’, ‘스포츠 활동’, ‘게임활동’, ‘인터넷 및 스마트폰 활동’, ‘독서활동’, ‘창작적 취미’, ‘가사일’, ‘휴식’, ‘친구와의 만남/대화’, ‘종교활동’, ‘봉사활동’, ‘기타’ 16가지 항목에 대해 주말/휴일 여가활동의 경우, 1순위, 2순위, 3순위를 선택하여 응답하고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활동의 경우, 3가지를 다중응답으로 선택하여 응답하도록 설문이 진행되었다. 그래서 주말/휴일 여가활동의 순위는 설문에 응답한 각 순위 별로 가장 높은 비율을 가진 항목을 나열했고,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활동의 순위는 다중응답으로 분석하여 케이스 기준 비율을 기준으로 가장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3가지를 나열했다.

부산 전체 청소년들의 여가활동 순위를 보면, 주말/휴일의 여가활동은 ‘인터넷 및 스마트폰 활동’(18.6%)이고, 향후 하고 싶은 여가활동은 ‘여행’(44.9%)을 1순위로 선택하였다. 구군별로 살펴보았을 때, 전체적으로 주말/휴일의 여가활동이 인터넷 및 스마트폰 활동, 게임활동과 같은 정적인 활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향후 하고 싶은 여가활동은 여행과 휴식처럼 심적 여유가 있는 활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12> 평소 운동 빈도

구분	N	비율(%)
거의 매일한다.	331	26.2
주 2-3회	463	36.7
주 1회	147	11.7
거의 하지 않는다.	320	25.4
계	1261	100.0

평소 운동 빈도는 ‘주2~3회’가 463명(36.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이어서 ‘거의 매일한다’가 331명(26.2%), ‘거의 하지 않는다’가 320명(25.4%), ‘주 1회’가 147명(11.7%)로 나타났다.

<표 13> 주로 하는 운동 종류

구분	N	비율(%)
헬스	162	16.7
공원이나 운동장 달리기	221	22.8
자전거타기	60	6.2
줄넘기	101	10.4
배드민턴	109	11.2
테니스	1	0.1
축구	96	9.9
농구	72	7.4
야구	5	0.5
수영	21	2.2
격투기	48	4.9
기타	74	7.6
계	970	100.0

주로 하는 운동은 ‘공원이나 운동장 달리기’가 221명(22.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이어서 ‘헬스’가 162명(16.7%), ‘배드민턴’이 109명(11.2%)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낮은 비율은 ‘테니스’로 1명(0.1%)로 나타났다.

<표 14> 규칙적인 운동 불가 이유

구분	N	비율(%)
시간이 없다	437	54.8
공간, 시설 부족하다	84	10.5
좋아하지 않는다	175	21.9
몸이 불편하다	15	1.9
필요성을 못 느낀다	43	5.4
경제적으로 부담된다	5	0.6
기타	39	4.9
계	798	100.0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못하는 이유로 '시간이 없다'가 437명(54.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이어서 '좋아하지 않는다'가 175명(21.9%), '공간, 시설 부족하다'가 84명(10.5%), '필요성을 못 느낀다'가 43명(5.4%), '기타'가 39명(4.9%)으로 나타났고, '몸이 불편하다', '경제적으로 부담된다'가 각각 15명(1.9%), 5명(0.6%)으로 매우 낮은 비율을 차지했다.

<표 15> 부모님과 함께 하는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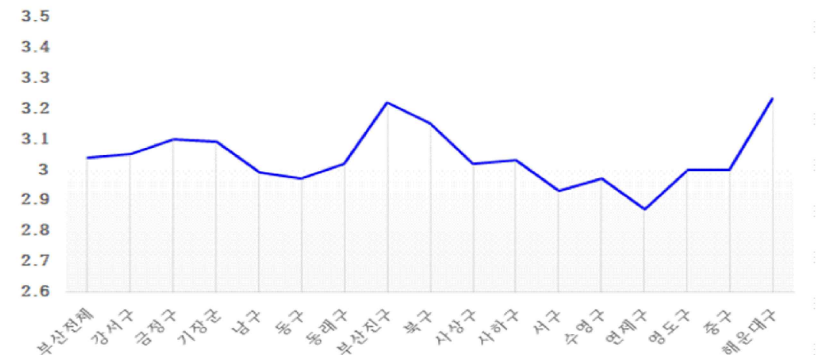
구분	부모님과 함께하는 활동				
	N	전혀 하지 않는다	거의 하지 않는다.	가끔 한다.	자주 한다.
나의 고민에 관한 대화	1262	116 (9.2)	224 (17.7)	504 (39.9)	418 (33.1)
학교생활에 관한 대화	1264	65 (5.1)	130 (10.3)	429 (33.9)	640 (50.6)
책, TV, 영화에 대한 대화	1263	116 (9.2)	289 (22.9)	469 (37.1)	389 (30.8)
정치, 사회, 문화적 주제에 관한 대화	1258	220 (17.5)	383 (30.4)	420 (33.4)	235 (18.7)
여가활동(영화, 운동, 외식, 여행 등)	1261	57 (4.5)	141 (11.2)	511 (40.5)	552 (43.8)
아침식사	1260	177 (14.0)	241 (19.1)	302 (24.0)	540 (42.9)
저녁식사	1261	57 (4.5)	147 (11.7)	327 (25.9)	730 (57.9)

'나의 고민에 관한 대화'에서는 가끔 하는 학생이 504명(39.9%)로 가장 높았고, 전혀 하지 않는 학생이 116명(9.2%)로 가장 낮았다. '학교생활에 관한 대화'에서는 자주 한다는 학생이 640명(50.6%)로 가장 높았고, 전혀 하지 않는 학생이 65명(5.1%)로 가장 낮았다. '책,TV,영화에 대한 대화'에서는 가끔 하는 학생이 469명(37.1%)로 가장 높았고, 전혀 하지 않는 학생이 116명(9.2%)로 가장 낮았다. '정치, 사회, 문화적 주제에 관한 대화'에서는 가끔 하는 학생이 420명(33.4%)로 가장 높았고, 전혀 하지 않는 학생이 220명(17.5%)로 가장 낮았다. '여가활동'에서는 자주 하는 학생이 552명(43.8%)로 가장 높았고, 전혀 하지 않는 학생이 57명(4.5%)로 가장 낮았다. '아침식사'에서는 자주 하는 학생이 540명(42.9%)로 가장 높았고, 전혀 하지 않는 학생이 177명(14.0%)로 가장 낮았다. '저녁식사'에서는 자주 하는 학생이 730명(57.9%)로 가장 높았고, 전혀 하지 않는 학생이 57명(4.5%)로 가장 낮았다.

<표 16> 구군별 부모님과 함께하는 활동 만족도

	전체	강서구	금정구	기장군	남구	동구	동래구	부산진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수영구	연제구	영도구	중구	해운대구
A	2.97	2.78	3.22	3.09	2.83	2.87	2.93	3.25	3.21	2.84	3.01	2.81	2.83	2.77	3.00	2.84	3.37
B	3.30	3.13	3.48	3.45	3.24	3.18	3.29	3.53	3.42	3.25	3.32	3.14	3.20	3.15	3.27	3.20	3.69
C	2.90	3.04	2.91	2.73	2.76	2.96	2.89	3.16	3.04	2.86	2.96	2.69	2.86	2.66	2.86	2.90	3.12
D	2.53	2.57	2.57	2.71	2.49	2.41	2.55	2.83	2.71	2.45	2.41	2.45	2.44	2.38	2.48	2.37	2.69
E	3.24	3.34	3.32	3.37	3.29	3.18	3.21	3.28	3.36	3.20	3.28	3.08	3.06	3.00	3.28	3.24	3.29
F	2.96	3.05	2.77	3.00	2.91	2.83	2.98	3.12	2.95	2.94	2.92	2.94	2.96	2.94	2.82	3.04	3.13
G	3.37	3.45	3.45	3.33	3.39	3.38	3.25	3.38	3.39	3.61	3.34	3.38	3.44	3.21	3.27	3.38	3.23
A: 고민에 대한 대화									B: 학교생활에 대한 대화								
C: 책, TV, 영화에 대한 대화									D: 정치, 사회, 문화적 주제에 대한 대화								
E: 여가활동(영화, 운동, 외식, 여행 등)									F: 아침식사								
G: 저녁식사																	

함께하는 활동 만족도의 구군별 평균을 살펴본 결과, '나의 고민에 관한 대화'는 해운대구가 3.37점으로 지역들 중 가장 높았으며, 강서구가 2.78점으로 가장 낮았다. '학교 생활에 대한 대화' 만족도 평균은 해운대구가 3.6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강서구가 3.13점으로 가장 낮았다. '책, TV, 영화에 대한 대화' 만족도 평균은 부산진구가 3.1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서구가 2.69점으로 가장 낮았다. '정치, 사회, 문화적 주제에 관한 대화' 만족도 평균은 부산진구가 2.8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중구가 2.37점으로 가장 낮았다.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 평균은 기장군이 3.3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연제구가 3.00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아침식사'에 대한 만족도 평균은 해운대구가 3.1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금정구가 2.77점으로 가장 낮았다. '저녁식사'에 대한 만족도 평균은 사상구가 3.6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연제구가 3.21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림 2> 구군별 부모님과 함께하는 활동 만족도

<표 17>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에 대한 만족도의 인구통계학적 비교

구분	N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에 대한 만족도			
		평균	표준편차	100점 환산	t값
성별	남자	603	1.38	45.94	0.494
	여자	664	1.36	45.38	
학교 급	중학교	594	1.29	42.99	-4.533***
	고등학교	673	1.44	47.99	
가족거주	부모님	1060	1.35	45.09	-2.121*
	그 외	207	1.45	48.47	
계	1267				

\*p<.05, \*\*p<.01, \*\*\*p<.001

‘성별’, ‘학교 급’, ‘가족 거주’ 따른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이 때,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에 대한 만족도 문항은 3점 만점으로 즉, 충분하다(3점), 부족하다(2점), 필요없다(1점)로 점수화하였다. 그 결과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에 대한 만족도 평균 점수는 1.37점이고,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45.65점이다. ‘성별’에 따른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한 결과 t값이 0.494로 유의수준 0.05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학교 급’에 따른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에 대한 만족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한 결과 t값이 -4.533으로 유의수준 0.05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거주’에 따른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에 대한 만족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한 결과 t값이 -2.121로 유의수준 0.05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학생이 그 외 거주 경우 학생보다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에 대한 만족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 학교생활 만족도의 인구통계학적 비교

구분	N	학교생활 만족도			
		평균	표준편차	100점 환산	t값
성별	남	603	3.74	0.880	0.217
	여	666	3.73	0.830	
학교 급	중학교	594	3.89	0.858	6.037***
	고등학교	675	3.60	0.828	
가족거주	부모님	1061	3.75	0.843	1.695
	그 외	208	3.64	0.903	
계	1269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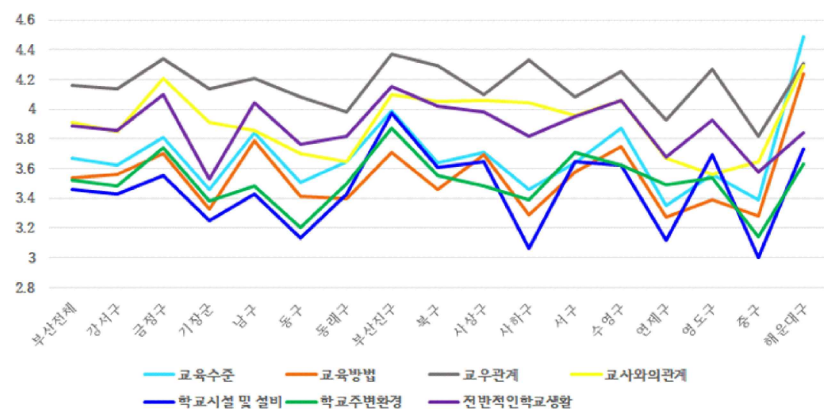
‘성별’, ‘학교 급’, ‘가족거주’에 따른 학교생활 만족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하였다. 이 때, 학교생활 만족도 문항은 5점 만점으로 즉,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별로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어느 정도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로 점수화하였다. 그 결과 학교생활 만족도 평균 점수는 3.74이고,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74.71점이다. ‘성별’에 따른 학교생활 만족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t값이 0.217으로 유의수준 0.05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학교 급’에 따른 학교생활 만족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t값이 6.037으로 유의수준 0.05 하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학교생활 만족도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족거주’에 따른 학교생활 만족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t값이 1.695로 유의수준 0.05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19> 구군별 학교생활 만족도

	전체	강서구	금정구	기장군	남구	동구	동래구	부산진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수영구	연제구	영도구	중구	해운대구
A	3.67	3.62	3.81	3.46	3.84	3.51	3.65	3.99	3.64	3.71	3.46	3.64	3.87	3.35	3.56	3.39	4.49
B	3.54	3.56	3.70	3.33	3.79	3.41	3.40	3.71	3.46	3.69	3.29	3.58	3.75	3.27	3.39	3.28	4.24
C	4.16	4.14	4.34	4.14	4.21	4.08	3.98	4.37	4.29	4.10	4.33	4.08	4.25	3.93	4.27	3.82	4.31
D	3.91	3.85	4.21	3.91	3.86	3.70	3.65	4.10	4.05	4.06	4.04	3.96	4.06	3.67	3.56	3.65	4.29
E	3.46	3.43	3.55	3.25	3.43	3.13	3.43	3.97	3.61	3.65	3.06	3.65	3.62	3.12	3.69	3.00	3.73
F	3.52	3.48	3.74	3.38	3.48	3.20	3.50	3.87	3.55	3.48	3.39	3.71	3.62	3.49	3.54	3.14	3.63
G	3.89	3.86	4.10	3.53	4.04	3.76	3.82	4.15	4.02	3.98	3.82	3.95	4.06	3.68	3.93	3.58	3.84
A: 교육수준								B: 교육방법									
C: 교우관계								D: 교사와의관계									
E: 학교시설 및 설비								F: 학교주변환경									
G: 전반적인학교생활																	

만족도의 구군별 평균을 구한 결과 학교생활 만족도에 대한 전체 평균값이 전반적으로 3-4점대에 포진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영역별로 살펴본 결과 ‘교육수준’의 경우 해운대구가 3.49점으로 지역들 중 가장 높았고, 중구가 3.39점으로 가장 낮았다. ‘교육방법’에 대한 만족도 평균은 해운대구가 4.2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연제구가 3.27점으로 가장 낮았다. ‘교우관계’에 대한 만족도 평균은 부산진구가 4.37점으로 가장 높고 중구가 3.82점으로 가장 낮았다. ‘교사와의 관계’ 만족도 평균을 비교한 결과, 해운대구가 4.2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영도구가 3.56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학교시설 및 설비’에 대한 만족도 평균은 해운대구가 3.73로 가장 높았고, 중구가 3.00으로 다른 지역 중 가장 낮았다. ‘학교주변환경’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부산진구가 3.9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중구가 3.00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부산진구가 4.1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기장군이 3.53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림 3> 구군별 학교생활 만족도

<표 20>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한 경험

구분	N	비율(%)
네	535	42.3
아니오	730	57.7
계	1265	100.0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한 '경험이 있는 학생'이 535명(42.3%),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한 '경험이 없는 학생'이 730명(57.7%)로 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표 21>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한 이유

구분	N	비율(%)
성적에 대한 부담감	327	33.2
공부하기 싫어서	281	28.5
친구나 선후배 문제	45	4.6
선생님과의 갈등	47	4.8
학교의 규율과 통제가 싫어서	209	21.2
기타	77	7.8
계	986	100.0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한 이유는 '성적에 대한 부담감'이 327명(33.2%)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공부하기 싫어서'가 281명(28.5%), '학교의 규율과 통제가 싫어서'가 209명(21.2%), '기타'가 77명(7.8%), '선생님과의 갈등'이 47명(4.8%), '친구나 선후배 문제'가 45명(4.6%)을 차지했다.

<표 22> 최근 6개월 동안 받아본 과외 종류

구분	N	비율(%)
학원	681	54.2
과외	110	8.8
학습지	34	2.7
인터넷	91	7.2
기타	17	1.4
없다	324	25.8
계	1257	100.0

최근 6개월 동안 받아본 과외는 '학원'이 681명(54.2%)로 가장 많았고, '없다'가 324명 (25.8%), '과외'가 110명(8.8%), '인터넷'이 91명(7.2%), '학습지'와 '기타'가 각각 34명(2.7%), 17명(1.4%)순으로 나타났다.

<표 23> 청소년의 과외활동 현황(주/하루)

주/하루평균시간	1시간 미만	1-2시간 미만	2-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N (행% / 열%)
1회	9 (24.3%)	20 (54.1%)	3 (8.1%)	5 (13.5%)	37 (100.0%/4.2%)
2회	11 (8.0%)	54 (39.1%)	46 (33.3%)	27 (19.6%)	138 (100.0%/15.5%)
3회	8 (5.1%)	76 (48.7%)	60 (38.5%)	12 (7.7%)	156 (100.0%/17.6%)
4회	1 (1.1%)	44 (50.0%)	27 (30.7%)	16 (18.2%)	88 (100.0%/9.9%)
5회	4 (1.2%)	94 (29.2%)	128 (39.8%)	96 (29.8%)	322 (100.0%/36.3%)
6회	0 (0.0%)	28 (28.6%)	39 (39.8%)	31 (31.6%)	98 (100.0%/11.0%)
7회	0 (0.0%)	11 (22.4%)	13 (26.5%)	25 (51.0%)	49 (100.0%/5.5%)
계	33 (3.7%)	327 (36.8%)	316 (35.6%)	212 (23.9%)	888 (100.0%)

청소년의 과외활동 현황은 '하루 평균 시간'에서 '1-2시간 미만'이 327명 (36.8%)으로 가장 많았고, '주 평균 시간'에서 5회가 322명(36.3%)으로 가장 많았다.

'주 1회'에서는 '1-2시간 미만'이 20명 (54.1%)으로 가장 많았고, '주 2회'에서는 '1-2시간 미만'이 54명 (39.1%)으로 가장 많았다. '주 3회'에서는 '1-2시간 미만'이 76명 (48.7%)으로 가장 많았고, '주 4회'에서는 '1-2시간 미만'이 44명 (50.0%)으로 가장 많았다. '주 5회'에서는 '2-3시간 미만'이 128명 (39.8%)으로 가장 많았고, '주 6회'에서는 '2-3시간 미만'이 39명 (39.8%)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 7회'에서는 '3시간 이상'이 25명 (51.0%)으로 가장 많았다.

<표 24> 청소년의 자원봉사 경험 여부

구분	N	비율(%)
네	852	67.2
아니오	415	32.8
계	1267	100.0

청소년의 자원봉사 경험 여부는 '경험한 사람'이 852명(67.2%)로 나타났으며, '경험 여부가 없는 사람'이 415명(32.8%)으로 나타났다.

<표 25> 자원봉사활동 참여 이유

구분	N	비율(%)
봉사점수 따기 위해서	653	77.5
자원봉사활동이 좋아서	126	14.9
부모님의 권유	33	3.9
기타	31	3.7
계	843	100.0

자원봉사활동을 참여한 이유는 '봉사점수 따기 위해서'가 653명(77.5%)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자원봉사활동이 좋아서'가 126명(14.9%), '부모님의 권유'가 33명(3.9%), '기타'가 31명(3.7%)로 나타났다.

<표 26> 최근 1년간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경로

구분	N	비율(%)
학교추천 프로그램 참여	224	26.6
동주민센터 및 청소년시설 등 봉사 프로그램 참여	82	9.7
친척이나 부모님의 소개	106	12.6
인터넷	383	45.5
기타	47	5.6
계	842	100.0

최근 1년 간 자원봉사활동의 참여 경로 방법 중에서 '인터넷'이 383명(45.5%)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학교추천 프로그램 참여'가 224명(26.6%), '친척이나 부모님의 소개'가 106명(12.6%), '동주민센터 및 청소년시설 등 봉사 프로그램 참여'가 82명(9.7%), '기타' 47명(5.6%)순으로 나타났다.

<표 27> 최근 1년간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횟수

구분	N	비율(%)
1회	146	17.5
2회	152	18.2
3회	158	19.0
4회	112	13.4
5회 이상	265	31.8
계	833	100.0

최근 1년간의 자원봉사활동의 참여 횟수가 '5회 이상'인 학생이 265명(31.8%)로 가장 높았고, '4회'인 학생이 112명(13.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28> 최근 1년간의 자원봉사활동 1회 참여 평균시간

구분	N	비율(%)
1시간	61	7.3
2시간	294	35.0
3시간	265	31.5
4시간	156	18.6
5시간 이상	64	7.6
계	840	100.0

최근 1년 간 자원봉사활동 1회 참여 시간에 대하여 평균적으로 '2시간' 참여한 학생이 294명(35.0%)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3시간' 참여한 학생이 265명 (31.5%), '4시간' 참여한 학생이 156명 (18.6%), '5시간 이상' 참여한 학생은 64명(7.6%)인 것으로 나타났다. '1시간' 참여한 학생은 61명(7.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29> 청소년시설 인지도 (다중응답)

구분	N	비율(%)
청소년 수련관(숙박시설이 없음)	488	13.3
청소년 수련원(숙박시설이 있음)	978	26.7
청소년 문화의 집	324	8.8
청소년활동 진흥센터	173	4.7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675	18.4
청소년 야영장	92	2.5
청소년 유스호스텔	417	11.4
사회복지기관	519	14.1
기타	3	0.1
계	3669	100.0

청소년시설 인지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소년수련원(숙박시설이 있음)'이 26%(978명)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가 18.4%(675명), '사회복지기관'이 14.1%(519명), '청소년수련관(숙박시설이 없음)'이 13.3%(488명), '청소년 유스호스텔'이 11.4%(417명), '청소년 문화의 집'이 8.8%(324명), '청소년 활동 진흥센터'가 4.7%(173명), '청소년 야영장'이 2.5%(92명), '기타'가 0.1%(3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30> 최근 1년간의 청소년시설 이용경험 (다중응답)

구분	N	비율(%)
청소년 수련관(숙박시설이 없음)	108	9.5
청소년 수련원(숙박시설이 있음)	559	49.3
청소년 문화의 집	67	5.9
청소년활동 진흥센터	34	3.0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39	3.4
청소년 야영장	19	1.7
청소년 유스호스텔	140	12.4
사회복지기관	56	4.9
기타	111	9.8
계	1133	100.0



최근 1년간의 청소년시설 이용경험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소년수련원(숙박시설이 있음)'이 49.3%(559명)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청소년 유스호스텔'이 12.4%(140명), '청소년수련관(숙박시설이 없음)'이 9.5%(108명), '기타'가 9.8%(111명), '청소년 문화의 집'이 5.9%(67명), '사회복지기관'이 4.9%(56명),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가 3.4%(39명), '청소년 활동 진흥센터'가 3.0%(34명), '청소년 야영장'이 1.7%(19명)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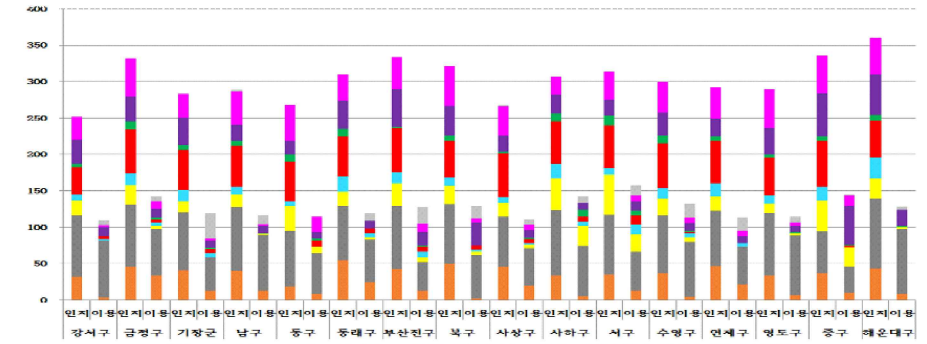
<표 31> 구군별 청소년시설 인지도 / 이용경험 (응답케이스 수 %)

구분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야영장	청소년유스호스텔	사회복지기관	기타	전체
강서구	인지	31.8	84.7	20.0	8.2	37.6	5.9	31.8	0.0	251.8
	이용	3.8	78.5	0.0	1.3	3.8	0.0	2.5	7.6	110.1
금정구	인지	45.9	85.1	27.0	16.2	60.8	10.8	33.8	52.7	332.4
	이용	34.0	63.8	4.3	4.3	4.3	2.1	12.8	10.6	142.6
기장군	인지	41.0	79.5	15.4	15.4	55.1	6.4	38.5	32.1	283.3
	이용	13.2	45.3	0.0	5.7	5.7	1.9	9.4	3.8	118.9
남구	인지	40.2	87.8	17.1	11.0	56.1	6.1	22.0	46.3	289.0
	이용	13.6	75.8	1.5	0.0	0.0	1.5	9.1	3.0	116.7
동구	인지	19.4	75.8	33.9	6.5	54.8	9.7	19.4	48.4	267.7
	이용	8.8	55.9	8.8	0.0	8.8	2.9	8.8	20.6	114.7
동래구	인지	54.8	75.0	19.0	21.4	54.8	10.7	38.1	35.7	309.5
	이용	24.5	58.5	3.8	5.7	5.7	0.0	11.3	0.0	118.9
부산진구	인지	42.9	86.8	30.8	15.4	60.4	2.2	51.6	44.0	334.1
	이용	13.1	39.3	6.6	8.2	6.6	1.6	18.0	11.5	127.9
북구	인지	50.0	81.7	25.6	11.0	50.0	7.3	41.5	54.9	322.0
	이용	2.8	59.7	4.2	2.8	5.6	0.0	31.9	5.6	129.2
사상구	인지	45.7	69.1	18.5	8.6	59.3	2.5	22.2	40.7	267.9
	이용	20.0	50.9	5.5	1.8	5.5	1.8	10.9	7.3	110.9
사하구	인지	33.8	90.1	43.7	19.7	57.7	11.3	26.8	23.9	307.0
	이용	5.6	68.5	27.8	5.6	7.4	9.3	0.0	9.3	142.6
서구	인지	35.0	82.5	55.0	8.8	58.8	13.8	21.3	38.8	313.8
	이용	13.1	54.1	23.0	13.1	13.1	6.6	13.1	8.2	157.4
수영구	인지	37.2	79.5	23.1	14.1	61.5	10.3	32.1	42.3	300.0
	이용	4.6	75.4	6.2	6.2	1.5	1.5	10.8	7.7	132.3
연제구	인지	46.7	76.0	20.0	17.3	58.7	6.7	24.0	42.7	292.0
	이용	21.4	52.4	0.0	4.8	0.0	0.0	9.5	7.1	114.3
영도구	인지	33.8	85.9	12.7	11.3	52.1	4.2	36.6	53.5	290.1
	이용	6.6	82.0	3.3	0.0	0.0	1.6	8.2	4.9	114.8
중구	인지	36.6	57.7	42.3	19.7	62.0	7.0	59.2	52.1	336.6
	이용	10.4	35.4	27.1	0.0	2.1	2.1	52.1	14.6	145.8
해운대구	인지	43.8	95.8	27.1	29.2	50.0	8.3	56.3	50.0	360.4
	이용	8.9	88.9	2.2	0.0	0.0	2.2	22.2	0.0	128.9

청소년시설 인지도를 구군별로 살펴본 결과, '청소년수련관(숙박시설이 없음)'을 기준으로 해당 시설을 알고 있는 청소년 비율이 동래구가 54.8%로 가장 높았으며, 동구가 19.4%로 가장 낮았다. '청소년수련원(숙박시설이 있음)'을 알고 있는 청소년 비율을 보면, 해운대구가 95.8%로 가장 높았으며, 중구가 57.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청소년 문화의 집'의 경우, 서구가 55.0%로 인지하고 있는 청소년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영도구가 12.7%로 가장 낮았다. '청소년 활동 진흥센터'의 경우, 해운대구가 29.2%로 인지하고 있는 청소년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동구가 6.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의 경우, 중구가 62.0%로 인지하고 있는 청소년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강서구가 37.6%로 가장 낮았다. '청

소년 야영장'의 경우, 서구가 13.8%로 인지하고 있는 청소년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사상구가 2.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청소년 유스호스텔'의 경우, 중구가 59.2%로 인지하고 있는 청소년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동구가 19.4%로 가장 낮았다. '사회복지기관'을 기준으로 해당 시설을 알고 있는 청소년의 비율이 북구가 54.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하구가 23.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최근 1년간 청소년 시설 이용경험을 구군별로 살펴본 결과, '청소년수련관(숙박시설이 없음)'을 기준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한 청소년 비율이 금정구가 34.0%로 가장 높았으며, 북구가 2.8%로 가장 낮았다. '청소년수련원(숙박시설이 있음)'을 이용한 청소년 비율을 보면, 해운대구가 88.9%로 가장 높았으며, 중구가 35.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청소년 문화의 집'의 경우, 사하구가 27.8%로 이용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강서구, 기장군, 연제구가 0.0%로 가장 낮았다. '청소년 활동 진흥센터'의 경우, 서구가 13.1%로 이용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남구, 동구, 영도구, 중구와 해운대구가 0.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의 경우, 서구가 13.1%로 이용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남구, 연제구, 영도구와 해운대구가 0.0%로 가장 낮았다. '청소년 야영장'의 경우, 사하구가 9.3%로 이용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강서구, 동래구, 북구와 연제구가 0.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청소년 유스호스텔'의 경우, 중구가 52.1%로 이용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영도구가 8.2%로 가장 낮았다. '사회복지기관'을 기준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한 청소년의 비율이 동구가 20.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동래구, 사하구와 해운대구가 0.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림 4> 구군별 청소년시설 인지도 / 이용경험 (응답케이스 수 %)

<표 32> 가장 필요한 청소년 시설 (다중응답)

구분	N	비율(%)
캠핑장/수련장	379	10.7
체육시설	631	17.9
놀이터나 공원	470	13.3
오락시설	585	16.6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110	3.1
문화시설	662	18.7
도서관	308	8.7
음악감상, 전시실	330	9.3
학원시설	57	1.6
계	353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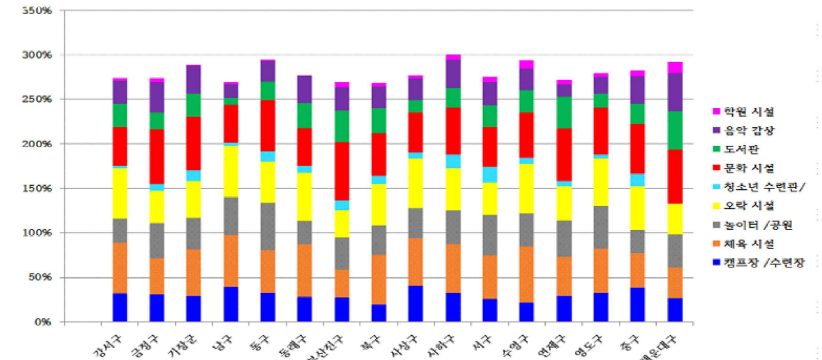
가장 필요한 청소년 시설에 대하여 살펴보면, ‘문화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18.7%(662명)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체육시설’이 17.9%(631명), ‘오락시설’이 16.6%(585명), ‘놀이터/공원’이 13.3%(470명), ‘캠핑장/수련장’이 10.7%(379명), ‘음악감상/전시실’이 9.3%(330명), ‘도서관’이 8.7%(308명), ‘청소년수련관/문화의 집’이 3.1%(110명), ‘학원시설’이 1.6%(57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33> 가장 필요한 청소년 시설 (복수응답, 응답 케이스 수 %)

구분	캠핑장/수련장	체육시설	놀이터/공원	오락시설	청소년수련관/문화의집	문화시설	도서관	음악감상/전시실	학원시설	전체
강서구	31.1	57.8	26.7	56.7	2.2	44.4	25.6	26.7	2.2	273.3
금정구	30.7	40.0	40.0	36.0	8.0	61.3	18.7	34.7	4.0	273.3
기장군	28.8	52.5	35.0	41.3	12.5	60.0	26.3	31.3	1.3	288.8
남구	39.0	58.5	42.7	57.3	3.7	42.7	7.3	15.9	2.4	269.5
동구	32.4	47.9	53.5	46.5	11.3	57.7	21.1	22.5	1.4	294.4
동래구	28.4	59.1	26.1	53.4	8.0	43.2	27.3	31.8	0.0	277.3
부산진구	27.2	31.5	35.9	30.4	10.9	66.3	34.8	26.1	6.5	269.6
북구	18.6	57.0	32.6	46.5	9.3	47.7	27.9	24.4	4.7	268.6
사상구	41.0	53.0	33.7	55.4	7.2	44.6	14.5	24.1	3.6	277.1
사하구	31.9	55.6	37.5	47.2	15.3	52.8	22.2	31.9	5.6	300.0
서구	25.9	48.2	45.9	36.5	17.6	44.7	24.7	25.9	5.9	275.3
수영구	21.7	62.7	37.3	55.4	7.2	50.6	25.3	24.1	9.6	294.0
연제구	28.6	44.0	41.7	38.1	6.0	58.3	35.7	14.3	4.8	271.4
영도구	31.9	50.0	48.6	52.8	4.2	52.8	16.7	18.1	4.2	279.2
중구	38.0	39.4	25.4	49.3	14.1	56.3	22.5	31.0	7.0	283.1
해운대구	26.5	34.7	36.7	34.7	0.0	61.2	42.9	42.9	12.2	291.8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시설을 구군별로 조사한 결과, ‘캠핑장/수련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사상구가 41.0%로 가장 높았으며, 북구가 18.6%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체육시설’의 경우, 수영구가 62.7%로 가장 높았고, 부산진구가 31.5%로 가장 낮았다. ‘놀이터/공원’의 경우, 동구가 53.5%로 가장 높았고, 중구가 25.4%로 가장 낮았다. ‘청소년수련관/문화의 집’의 경우, 서구가 17.6%로 가장 높았고,

해운대구가 0.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문화시설’의 경우, 부산진구가 66.3%로 가장 높으며, 남구가 42.7%로 가장 낮았다. ‘도서관’의 경우, 해운대구가 42.9%로 가장 높았고, 남구가 7.3%로 가장 낮았다. ‘음악감상/전시실’의 경우, 해운대구가 42.9%로 가장 높았고, 연제구가 14.3%로 가장 낮았다. ‘학원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해운대구가 12.2%로 가장 높았으며, 동래구가 0.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림 5> 가장 필요한 청소년 시설 (복수응답)

<표 34> 청소년 하루 평균 수면 시간

구분	평균(시간)	표준편차
평일	6.29	1.542
주말	8.66	2.071

청소년은 ‘평일’의 경우 하루 평균 6.29시간, ‘주말’의 경우 하루 평균 8.66시간으로 주말의 수면 시간이 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3. 청소년의 고민

<표 35> 청소년 스트레스 정도

구분	평균	100점 환산 점수	표준편차
가정생활	2.29	45.90	1.130
학교생활	2.66	53.30	1.165
학업성적	3.21	64.18	1.229
친구와의 관계	2.23	44.66	1.1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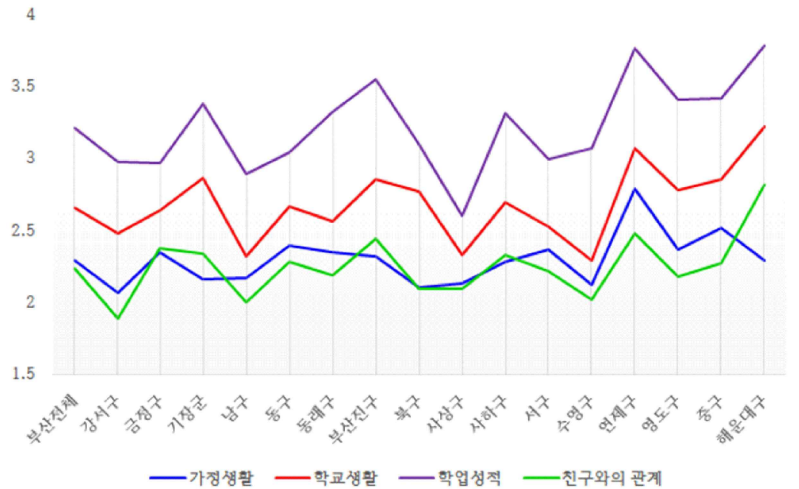
청소년 스트레스 정도는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았다(1점)’, ‘스트레스를 받지 않은 편이다(2점)’, ‘보통이다(3점)’, ‘스트레스를 받은 편이다(4점)’, ‘스트레스를 매우 많이 받았다(5점)’의 항목으로 리커트 5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 세부 항목 중 ‘학업성적’이 3.21점 (100점 환산 점수 64.18점)로 가장 높은 스트레스를 받고, 다음으로 ‘학교생활’이 2.66점 (100점 환산 점수 53.30점), ‘가정생활’이 2.29점 (100점 환산 점수 45.90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와의 관계’는 2.23점 (100점 환산 점수 44.66점)로 스트레스 정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 구군별 청소년 스트레스 정도

구분	전체	강서구	금정구	기장군	남구	동구	동래구	부산진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수영구	연제구	영도구	중구	해운대구
A	2.29	2.07	2.35	2.16	2.17	2.39	2.35	2.32	2.10	2.13	2.28	2.37	2.12	2.79	2.37	2.52	2.29
B	2.66	2.48	2.64	2.86	2.32	2.67	2.56	2.85	2.77	2.33	2.69	2.53	2.29	3.07	2.78	2.85	3.22
C	3.21	2.98	2.97	3.38	2.89	3.04	3.32	3.55	3.10	2.60	3.31	2.99	3.07	3.76	3.41	3.42	3.78
D	2.23	1.89	2.38	2.34	2.00	2.28	2.19	2.44	2.09	2.09	2.33	2.22	2.02	2.48	2.18	2.27	2.82

A: 가정생활  
B: 학교생활  
C: 학업성적  
D: 친구와의 관계

청소년 스트레스 정도의 영역별 평균을 비교했을 때, '가정생활'의 경우, 연제구가 2.79점으로 가장 높았고, 강서구가 2.07점으로 가장 낮았다. '학교생활'의 경우, 해운대구가 3.22점으로 가장 높았고, 수영구가 2.29점으로 가장 낮았다. '학업성적'의 경우, 해운대구가 3.78점으로 가장 높았고, 사상구가 2.60점으로 가장 낮았다. '친구와의 관계'에서의 스트레스의 정도는 해운대구가 2.82점으로 가장 높았고, 강서구가 1.89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림 6> 구군별 청소년 스트레스 정도

<표 37> 스트레스 해소방법

구분	N	비율(%)
대화(스마트폰 등 이용 대화 포함)	350	27.9
독서	37	2.9
음악	289	23.0
음식 먹기	117	9.3
운동	150	12.0
게임 하기(컴퓨터, 스마트폰)	298	23.7
흡연	13	1.0
음주	1	0.1
기타	0	0.0
계	1255	100.0

스트레스 해소방법은 '대화(스마트폰 등 이용 대화 포함)'가 350명(27.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기타' 0명(0.0%)를 제외하면 '음주' 1명(0.1%)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8> 현재 가장 고민하는 문제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합계	비율(%)
외모·키·몸무게	251	206	233	1398	20.1
신체적·정신적 건강	26	96	85	355	5.1
가정화목(부모불화, 형제갈등 등)	26	36	32	182	2.6
가계경제의 어려움(학비 납부 등)	18	14	25	107	1.5
용돈 부족	57	91	94	447	6.4
공부(성적, 적성 등)	506	221	143	2103	30.2
직업(직업 선택, 보수 등)	158	256	162	1148	16.5
교우관계(친구, 우정)	40	62	86	330	4.7
이성 교제(성(性)문제 포함)	7	27	48	123	1.8
학교, 학원폭력	6	7	7	39	0.6
흡연, 음주	5	5	14	39	0.6
인터넷 중독(채팅, 게임 등)	9	23	30	103	1.5
스마트폰 중독(채팅, 게임 등)	21	41	49	194	2.8
기타	8	1	7	33	0.5
고민 없음	99	15	25	352	5.1
계	1237	1101	1040	6953	100.0

청소년들이 현재 가장 고민하는 문제는 '공부(성적, 적성 등)'가 30.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외모·키·몸무게' 20.1%, '직업(직업 선택, 보수 등)' 16.5%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0.3%)를 제외하고는 '학교, 학원폭력'과 '흡연, 음주'가 0.6%로 가장 낮았다.

<표 39> 고민을 나누는 사람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합계	비율(%)
아버지	0	141	148	430	6.2
어머니	380	274	169	1857	26.6
형제자매	43	126	148	529	7.6
친구, 동료	400	317	177	2011	28.8
선후배	5	30	41	116	1.7
스승	10	35	56	156	2.2
청소년 전문 상담가	6	2	14	36	0.5
성직자	4	6	4	28	0.4
스스로 해결	195	132	240	1089	15.6
기타	0	13	18	44	0.6
계	1271	1076	1015	6980	100.0

청소년들이 고민을 나누는 사람으로는 ‘친구, 동료’ 28.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어머니’가 26.6%, ‘스스로 해결’ 15.6%순으로 높았다. 그리고 ‘성직자’ 0.4%, ‘청소년 전문 상담가’ 0.5%, ‘기타’ 0.6%, ‘선후배’ 1.7%, ‘스승’ 2.2%, ‘아버지’ 6.2%, ‘형제자매’ 7.6% 순으로 낮았다.

4. 청소년의 진로

<표 40> 학교 진로교육 경험 여부

구분	N	비율(%)
예	1175	92.6
아니오	94	7.4
계	1269	100.0

학교 진로교육의 ‘경험이 있는 학생’은 1175명(92.6%), ‘경험이 없는 학생’은 94명(7.4%)으로 나타났다.

<표 41> 구군별 학교 진로교육 경험이 있는 청소년 (빈도, %)

	전체	강서구	금정구	기장군	남구	동구	동래구	부산진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수영구	연제구	영도구	중구	해운대구
경험유무	1175 (92.6)	77 (85.6)	71 (92.2)	77 (96.3)	79 (95.2)	61 (85.9)	81 (92.0)	93 (98.9)	78 (90.7)	73 (88.0)	69 (95.8)	74 (88.1)	78 (91.8)	81 (96.4)	71 (98.6)	63 (88.7)	49 (100)

구군별로 학교 진로교육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빈도를 보면, 강서구, 동구, 사상구, 서구, 중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응답자의 90%이상이 진로교육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해운대구는 응답자의 100.0%(49명)이 학교 진로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석, 동구, 사상구, 서구, 중구 또한 진로교육을 경험한 학생들이 80-90%에 분포하고 있다.

<표 42> 학교 진로교육 종류 (다중응답)

구분	N	응답 비율(%)
‘진로와 직업’ 과목 수업	927	24.9
현장학습이나 견학	538	14.5
상담선생님의 상담	326	8.8
진로관련 검사	729	19.6
인터넷 또는 동영상	350	9.4
소집단 혹은 동아리활동	217	5.8
저명인사나 선배의 초청 강연	440	11.8
재량활동	191	5.1
계	3718	100.0

진로교육 종류 중 ‘진로와 직업’ 과목 수업’이 927명(24.9%)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진로관련 검사’가 729명(19.6%), ‘현장학습이나 견학’이 538명(14.5%)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량활동’은 191명(5.1%)으로 가장 낮았다.

<표 43> 학교 진로교육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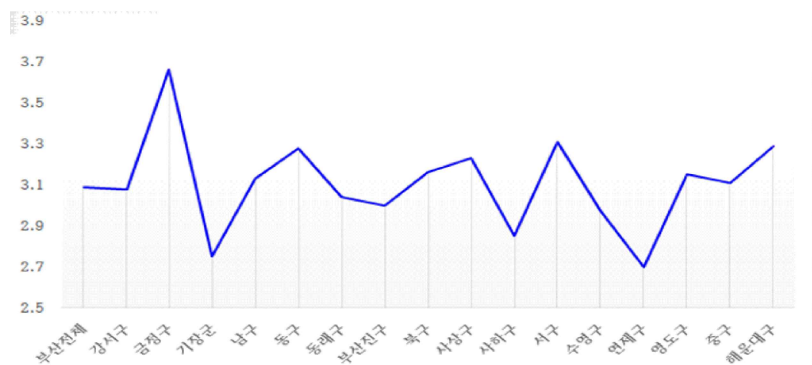
구분	평균	100점 환산 점수	표준편차
학교 진로교육 만족도	3.09	61.80	1.000

학교 진로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1175명 중, 물음에 응답한 1164명에 대한 학교 진로교육 만족도는 평균 3.09점 (100점 환산 점수 61.80점)으로 나타났다.

<표 44> 구군별 학교 진로교육 만족도

	전체	강서구	금정구	기장군	남구	동구	동래구	부산진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수영구	연제구	영도구	중구	해운대구
만족도	3.09	3.08	3.66	2.75	3.13	3.28	3.04	3.00	3.16	3.23	2.85	3.31	2.97	2.70	3.15	3.11	3.29

구군별로 학교 진로교육 만족도를 살펴보면, 모든 지역에서 ‘보통이다’라고 답변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지역에서 응답자의 40% 내외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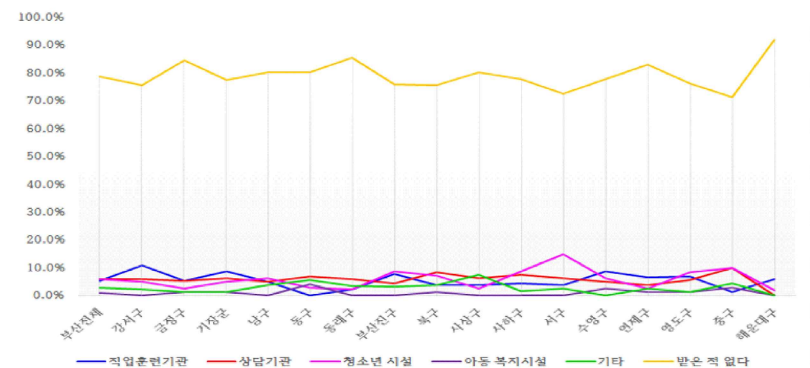
<그림 7> 구군별 학교 진로교육 만족도

<표 45> 학교를 제외한 진로교육을 받은 장소 (%)

(%)	전체	강서구	금정구	기장군	남구	동구	동래구	부산진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수영구	연제구	영도구	중구	해운대구
A	5.4	11.0	5.2	8.8	4.9	0.0	2.4	7.7	3.7	3.7	4.4	3.8	8.6	6.5	7.0	1.4	6.1
B	5.9	6.1	5.2	6.3	4.9	7.0	6.0	4.4	8.5	6.2	7.4	6.3	4.9	3.9	5.6	10.0	0.0
C	6.0	4.9	2.6	5.0	6.2	2.8	2.4	8.8	7.3	2.5	8.8	15.0	6.2	2.6	8.5	10.0	2.0
D	1.0	0.0	1.3	1.3	0.0	4.2	0.0	0.0	1.2	0.0	0.0	0.0	2.5	1.3	1.4	2.9	0.0
E	2.9	2.4	1.3	1.3	3.7	5.6	3.6	3.3	3.7	7.4	1.5	2.5	0.0	2.6	1.4	4.3	0.0
F	78.8	75.6	84.4	77.5	80.2	80.3	85.5	75.8	75.6	80.2	77.9	72.5	77.8	83.1	76.1	71.4	91.8
A: 직업훈련기관				B: 상담기관				C: 청소년시설				D: 아동복지시설				E: 기타	
																F: 받은 적 없다	

제외한 진로교육을 받은 장소를 살펴보면, ‘받은 적 없다’의 응답이 78.8%(965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청소년 시설’(6.0%, 74명), ‘상담기관’(5.9%, 72명), ‘직업훈련기관’(5.4%, 66명), ‘기타’(2.9%, 35명), ‘아동복지시설’(1.0%, 12명) 순으로 나타났다.

구군별로 살펴보면, 모든 지역에서 ‘받은 적 없다’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그 비율은 70-90%에 분포하고 있다. 학교 이외의 거의 모든 시설들이 10%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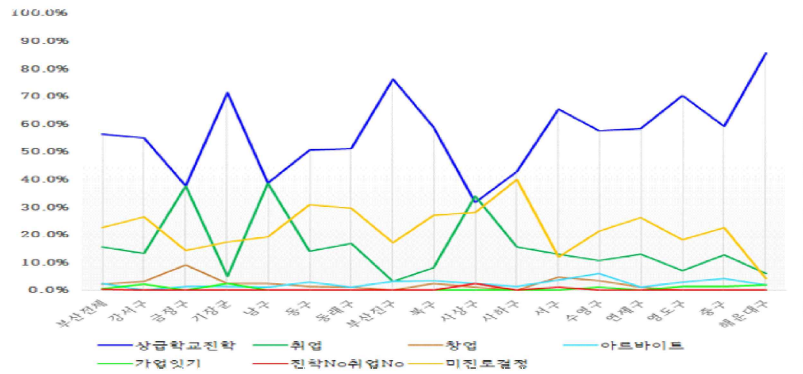
<그림 8> 학교를 제외한 진로교육을 받은 장소 (%)

<표 46> 향후진로계획 (%)

	전체	강서구	금정구	기장군	남구	동구	동래구	부산진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수영구	연제구	영도구	중구	해운대구
A	56.4	54.9	37.7	71.3	38.6	50.7	51.1	76.3	58.8	31.7	42.9	65.5	57.6	58.3	70.4	59.2	85.7
B	15.7	13.2	37.7	5.0	38.6	14.1	17.0	3.2	8.2	34.1	15.7	13.1	10.6	13.1	7.0	12.7	6.1
C	2.1	3.3	9.1	2.5	2.4	1.4	1.1	0.0	2.4	1.2	0.0	4.8	3.5	1.2	0.0	0.0	0.0
D	2.4	0.0	1.3	1.3	1.2	2.8	1.1	3.2	3.5	2.4	1.4	3.6	5.9	1.2	2.8	4.2	2.0
E	0.6	2.2	0.0	2.5	0.0	0.0	0.0	0.0	0.0	0.0	0.0	0.0	1.2	0.0	1.4	1.4	2.0
F	0.2	0.0	0.0	0.0	0.0	0.0	0.0	0.0	0.0	2.4	0.0	1.2	0.0	0.0	0.0	0.0	0.0
G	22.5	26.4	14.3	17.5	19.3	31.0	29.5	17.2	27.1	28.0	40.0	11.9	21.2	26.2	18.3	22.5	4.1
A: 상급학교로 진학할 것이다				B: 취업할 것이다 (유상으로 가업돌기 포함)				C: 창업할 것이다				D: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낼 것이다				E: 무보수로 가업을 도울 것이다	
																F: 진학도 취업도 하지 않을 것이다	

향후 진로계획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상급학교 진학’이 56.4%(713명)로 가장 청소년의 비율이 높았으며, 다음으로 ‘미 진로 결정(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함)’이 22.5%(284명), ‘취업’이 15.7%(199명), ‘아르바이트’가 2.4%(30명) 순으로 나타났다.

16개의 구군별로 살펴보면 모든 지역에서 ‘상급학교 진학’을 계획하고 있는 청소년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략적으로 50-70%의 비율을 띄고 있다.



<그림 9> 향후진로계획 (%)

<표 47>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

구분	N	비율(%)
예	151	11.9
아니오	1118	88.1
계	1269	100.0

아르바이트의 '경험이 있는 학생' 151명(11.9%), '경험이 없는 학생'은 1118명(88.1%)으로 나타났다.

<표 48>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구분	N	비율(%)
예	59	38.8
아니오	93	61.2
계	152	100.0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59명(38.8%), '경험이 없는 학생'은 93명(61.2%)으로 절반이 넘는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시 근로계약서 작성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49> 경험해 본 아르바이트 종류 (다중응답)

구분	N	비율(%)
사무업무 보조	7	3.2
PC방, 비디오방, 만화방, 노래방 서빙	10	4.5
식당, 레스토랑, 카페 서빙	106	48.0
옷가게, 편의점 판매원	10	4.5
신문, 우유, 피자, 음식 배달	1	0.5
전단지 돌리기	40	18.1
물건 포장이나 운반	15	6.8
주유소 주유원	7	3.2
건설현장 노동	1	0.5
아기 또는 노인 돌보기	6	2.7
기타	18	8.1
계	22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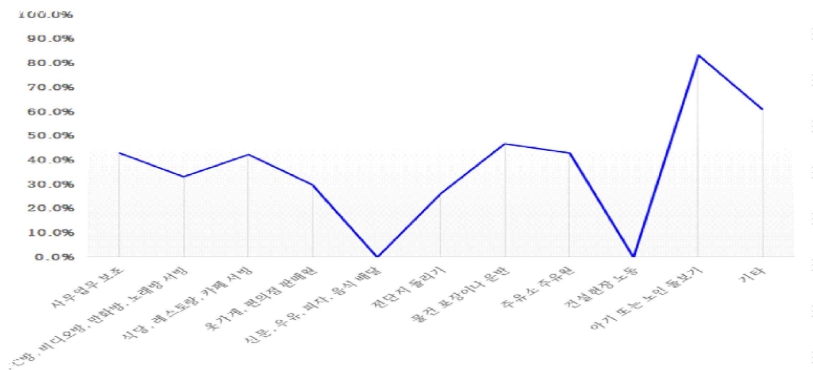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들 중에서 어떤 종류의 아르바이트를 해본 경험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식당, 레스토랑, 카페 서빙'이 48.0%(106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단지 돌리기'가 18.1%(40명), '기타'가 8.1%(18명), '물건 포장이나 운반'이 6.8%(15명), 'PC방, 비디오방, 만화방, 노래방 서빙'이 4.5%(10명), '옷가게, 편의점 판매원'이 4.5%(10명), '사무업무 보조'가 3.2%(7명), '건설현장 노동'이 3.2%(7명), '아기 또는 노인 돌보기'가 2.7%(6명), '신문, 우유, 피자, 음식배달'이 0.5%(1명), '주유소 주유원'이 0.5%(1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50>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에 따른 아르바이트 경험 종류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사무업무 보조	PC방, 비디오방, 만화방, 노래방 서빙	식당, 레스토랑, 카페 서빙	옷가게, 편의점 판매원	신문, 우유, 피자, 음식 배달	전단지 돌리기	물건 포장이나 운반	건설현장 노동	주유소 주유원	아기 또는 노인 돌보기	기타
예	3 (42.9)	3 (33.3)	45 (42.5)	3 (30.0)	0 (0.0)	10 (26.3)	7 (46.7)	3 (42.9)	0 (0.0)	5 (83.3)	11 (61.1)
아니오	4 (57.1)	6 (66.7)	61 (57.5)	7 (70.0)	1 (100.0)	28 (73.7)	8 (53.3)	4 (57.1)	1 (100.0)	1 (16.7)	7 (38.9)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는 아르바이트의 종류를 살펴보면, '아기 또는 노인 돌보기'가 83.3%로 가장 많고, '기타'를 제외하고 다음으로 '물건 포장이나 운반'이 46.7%, '건설현장노동'과 '사무업무보조'가 42.9%, 'PC방, 비디오방, 만화방, 노래방, 서빙'이 33.3% 순으로 나타난다. 반면에, '신문, 우유, 피자, 음식배달'과 '주유소 주유원'이 0.0%로 근로계약서 작성 비율이 가장 적다.





<그림 10>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에 따른 아르바이트 경험 종류 (%)

<표 51> 아르바이트 하게 된 이유

구분	N	비율(%)
생활비와 학비를 벌기 위해서	3	2.0
용돈이 부족해서	81	52.9
취업(사회)경험을 쌓기 위해서	13	8.5
남은 시간을 활용하려고	18	11.8
친구들의 권유로	7	4.6
중요한 무엇인가를 사거나 쓸 곳이 생겨서	19	12.4
진로 선택에 도움을 받으려고	4	2.6
기타	8	5.2
계	153	100.0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이유로는 ' '을 이유로 든 청소년의 비율이 52.9%(81명)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돈 사용처 생김(중요한 무엇인가를 사거나 쓸 곳이 생김)'이 12.4%(19명), '남은 시간활용'이 11.8%(18명), '취업경험'이 8.5%(13명), '기타'가 5.2%(8명), '친구들의 권유'가 4.6%(7명), '진로선택에 도움'이 2.6%(4명), '생활비와 학비 벌기'가 2.0%(3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52> 아르바이트 장애요인

구분	N	비율(%)
낮은 임금수준	39	27.1
어른들이 아르바이트를 안 좋게 보는 시각	29	20.1
구타나 폭행	0	0.0
임금착취 및 체불	4	2.8
위험한 주변 환경	10	6.9
기타(귀찮음, 낮가림, 손님과의 마찰, 육체적 피로 등)	62	43.1
계	144	100.0

아르바이트 장애요인 중 '기타'가 43.1%(62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낮은 임금수준'(27.1%, 39명),

'어른들의 부정적 시각'(20.1%, 29명), '위험한 주변환경'(6.9%, 10명), '임금착취 및 체불'(2.8%, 4명), '구타/폭행'(0.0%, 0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53> 아르바이트 피해(금전적, 신체적 등) 여부

	빈도	비율(%)
	5	3.3
아니오	146	96.7
계	151	100.0

아르바이트를 통해 금전적, 신체적 '피해를 입은 학생'은 5명(3.3%), '피해를 입지 않은 학생'이 146명(96.7%)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 최저임금 정보 인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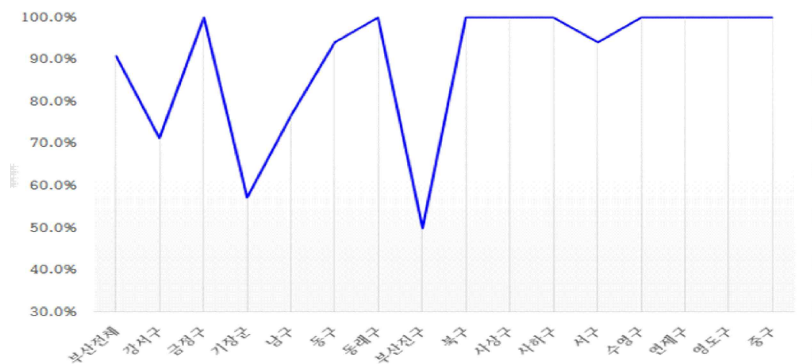
구분	빈도	비율(%)
네	140	90.9
아니오	14	9.1
계	154	100.0

2017년 현재 최저임금이 6,470원임을 '알고 있는 학생'이 140명(90.9%)로 높은 비율을 가지고, 최저임금에 대해 '모르는 학생'이 14명(9.1%)이다.

<표 55> 구군별 최저임금 정보를 인지하고 있는 청소년의 빈도 (%)

	전체	강서구	금정구	기장군	남구	동구	동래구	부산진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수영구	연제구	영도구	중구
최저임금 인지	140	10	16	4	10	16	6	2	3	19	5	16	11	9	4	9
	(90.9)	(71.4)	(100.0)	(57.1)	(76.9)	(94.1)	(100.0)	(50.0)	(100.0)	(100.0)	(100.0)	(94.1)	(100.0)	(100.0)	(100.0)	(100.0)

최저임금 정보를 인지하고 있는 청소년의 빈도를 구군별로 살펴보면 최저임금 정보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 비율이 강서구, 기장군, 남구, 부산진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90% 이상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정보를 알고 있는 청소년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금정구, 동래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수영구, 연제구, 영도구, 중구이며 응답자의 100.0%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반면에 부산진구는 알고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이 50.0%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1> 구군별 최저임금 정보를 인지하고 있는 청소년 (%)

## 5. 청소년의 온라인 활동

<표 56> 인터넷(스마트폰 포함) 이용 빈도

	빈도	비율(%)
1 미만	125	9.9
1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621	48.9
3시간 이상 - 5시간 미만	340	26.8
5시간 이상 - 7시간 미만	117	9.2
7시간 이상	60	4.7
인터넷 사용을 안한다	6	0.5
계	1269	100.0

하루 인터넷(스마트폰 포함) 이용 시간에 대하여 살펴보면, 하루 중 '1시간 이상에서 3시간 미만'이라고 응답(48.9%, 621명)한 청소년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3시간 이상 5시간 미만'이 26.8%(240명), '1시간 미만'이 9.9%(125명), '5시간 이상 7시간 미만'이 9.2%(117명), '7시간 이상'이 4.7%(60명), '이용 안 한다'가 0.5%(6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57> 구군별 인터넷(스마트폰 포함) 이용 %

%	전체	강서구	금정구	기장군	남구	동구	동래구	부산전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수영구	연제구	영도구	중구	해운대구
A	9.9	6.6	1.3	18.8	6.0	2.8	17.0	18.1	10.5	6.0	9.7	4.8	9.4	9.5	8.3	5.6	26.5
B	48.9	62.6	55.3	52.5	47.0	19.7	52.3	46.8	53.5	43.4	50.0	39.3	51.8	59.5	40.3	47.9	59.2
C	26.8	20.9	34.2	21.3	31.3	39.4	23.9	20.2	20.9	31.3	30.6	41.7	17.6	22.6	34.7	23.9	14.3
D	9.2	7.7	5.3	6.3	12.0	19.7	5.7	10.6	9.3	10.8	6.9	4.8	12.9	4.8	11.1	18.3	0.0
E	4.7	2.2	3.9	1.3	3.6	15.5	0.0	3.2	4.7	8.4	2.8	8.3	8.2	3.6	5.6	4.2	0.0
F	0.5	0.0	0.0	0.0	0.0	2.8	1.1	1.1	1.2	0.0	0.0	1.2	0.0	0.0	0.0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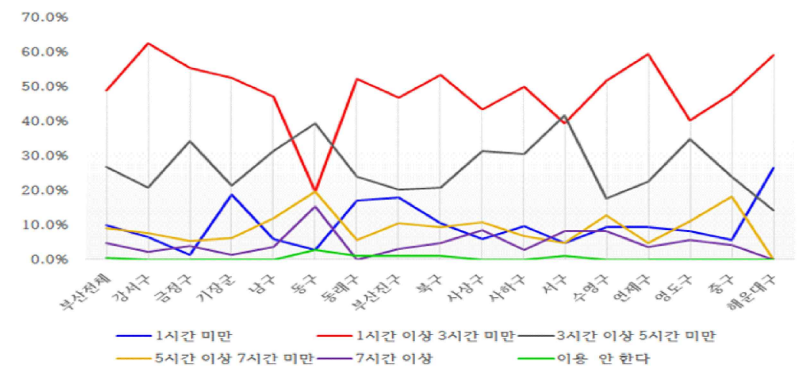
A: 1 미만  
C: 3시간 이상 - 5시간 미만

B: 1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D: 5시간 이상 - 7시간 미만

E: 7시간 이상

F: 인터넷 사용을 안한다

구군별로 인터넷 이용 퍼센트를 살펴보면, 모든 지역에서 인터넷 혹은 스마트폰 하루 이용 시간이 '1시간 이상 5시간 미만'에 절반 이상이 분포되어 있었다.



<그림 12> 구군별 인터넷(스마트폰 포함) 이용 퍼센트

<표 58> SNS(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이용 여부 (다중응답)

구분	빈도	비율(%)
미니홈피	9	0.3
블로그(네이버 블로그, 티스토리 등)	255	9.3
마이크로블로그(트위터, 텀블러 등)	281	10.2
커뮤니티(클럽, 카페 등)	180	6.6
프로필 기반 서비스(페이스북, 마이스페이스 등)	916	33.3
메신저 서비스(카카오톡 등)	1061	38.6
기타	46	1.7
계	2748	100.0

가장 많이 이용하는 SNS는 '메신저 서비스(카카오톡 등)'이 1061명(38.6%)이다. 다음으로 '프로필 기반 서비스(페이스북, 마이스페이스 등)'이 916명(33.3%)을 차지한다. 1, 2위가 압도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어서 '마이크로블로그(트위터, 텀블러 등)'가 281명(10.2%), '블로그(네이버 블로그, 티스토리 등)' 255명(9.3%), '커뮤니티(클럽, 카페 등)' 180명(6.6%)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타'와 '미니홈피'는 각각 46명(1.7%), 9명(0.3%)으로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9> 인터넷 과다사용으로 인한 어려움 경험 여부

	빈도	비율(%)
	135	10.7
아니오	1130	89.3
계	1265	100.0

인터넷 과다사용으로 인한 어려움을 '경험한 학생'은 135명(10.7%), '경험이 없는 학생'은 1130명(89.3%)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60> 인터넷 중독예방교육 경험 여부

구분	빈도	비율(%)
네	826	68.4
아니오	381	31.6
계	1207	100.0

인터넷 관련 중독예방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이 826명(68.4%), '경험이 없는 학생'이 381명(31.6%)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61> 인터넷 중독예방교육의 만족도

구분	N	평균	100점 환산 점수	표준편차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만족도	841	2.75	55.00	0.981

인터넷 관련 중독예방 교육 만족도를 '전혀 효과가 없다(1점), 효과가 없다(2점), 보통이다(3점), 효과가 있다(4점), 매우 효과가 있다(5점)'의 리커트 5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 그 결과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평균 만족도 점수는 2.75점 (100점 환산 점수 55.00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62> 휴대전화 처음 사용 시기

구분	빈도	비율(%)
초등학교 1학년	190	15.0
초등학교 2학년	159	12.6
초등학교 3학년	233	18.4
초등학교 4학년	218	17.2
초등학교 5학년	204	16.1
초등학교 6학년	142	11.2
중학교 1학년	81	6.4
중학교 2학년	18	1.4
중학교 3학년	7	0.6
고등학교 1학년	5	0.4
고등학교 2학년	2	0.2
휴대전화를 사용한 적 없음	7	0.6
계	1266	100.0

휴대전화를 처음 사용한 시기는 '초등학교 3학년'이 233명(18.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초등학교 4학년' 218명(17.2%), '초등학교 5학년' 204명(16.1%), '초등학교 1학년' 190명(15.0%), '초등학교 2학년' 159명(12.6%), '초등학교 6학년' 142명(11.2%)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반수 이상이 초등학교 때 처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휴대전화를 사용한 적이 없는 학생'은 7명(0.6%)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3> 휴대전화 사용 및 중독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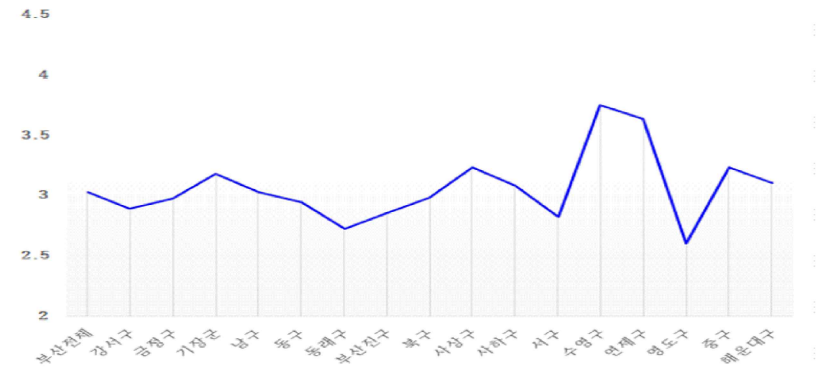
구분	N	평균	100점 환산 점수	표준편차
휴대전화 사용 및 중독	1246	2.13	42.52	0.820

휴대전화 사용 및 중독을 '전혀 효과가 없다(1점), 효과가 없다(2점), 보통이다(3점), 효과가 있다(4점), 매우 효과가 있다(5점)'의 리커트 5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 그 결과 휴대전화 사용 및 중독 평균 점수는 2.13점 (100점 환산 점수 42.52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64> 인터넷(휴대폰 포함) 과다이용 어려움 경험유무 따른 휴대폰 의존 정도 (5점 척도, 평균)

	전체	강서구	금정구	기장군	남구	동구	동래구	부산진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수영구	연제구	영도구	중구	해운대구
유	3.03	2.89	2.97	3.18	3.03	2.94	2.72	2.85	2.98	3.23	3.08	2.82	3.75	3.63	2.60	3.23	3.10
무	2.02	1.86	1.94	1.98	1.93	2.03	2.08	1.94	2.03	2.01	2.32	1.94	2.00	2.10	2.18	2.11	1.94

인터넷(휴대폰 포함) 과다이용 어려움 경험 유무에 따른 휴대폰 의존정도를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인터넷 과다이용에 어려움을 겪은 청소년이 휴대폰 의존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구군별로 살펴보니, 인터넷 과다이용에 따른 어려움을 겪은 학생들 중 수영구 청소년이 3.75점으로 휴대폰 의존정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연제구가 3.63점, 사상구와 중구가 3.23점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휴대폰 의존정도가 낮았던 지역은 영도구(2.63점)다.



<그림 13> 인터넷(휴대폰 포함) 과다이용 어려움 경험유무 따른 휴대폰 의존 정도

<표 65> 휴대전화 평균 사용시간(평일, 주말, 일주일 단위)

	N	평균	표준편차
	1209	2.92	2.065
주말	1219	4.96	3.239
일주일	1198	3.51	2.2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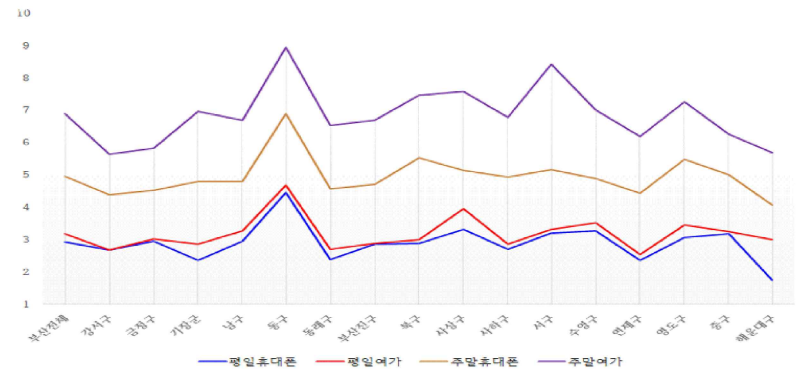
휴대전화 평균 사용시간을 평일, 주말, 일주일 단위로 알아보았다. '평일'은 평균 2.92시간, '주말'은 평균 4.96시간, 그리고 '일주일' 평균 3.51시간을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6> 구군별 휴대전화 평균 사용시간 및 여가시간(평일, 주말 단위)

구분	전체	강서구	금정구	기장군	남구	동구	동래구	부산진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수영구	연제구	영도구	중구	해운대구
평일휴대폰	2.92	2.67	2.96	2.37	2.96	4.46	2.39	2.85	2.89	3.32	2.69	3.20	3.26	2.36	3.06	3.18	1.74
평일여가	3.18	2.68	3.03	2.85	3.27	4.68	2.70	2.88	2.99	3.95	2.86	3.31	3.53	2.55	3.45	3.24	2.99
주말휴대폰	4.96	4.38	4.52	4.79	4.80	6.89	4.56	4.70	5.52	5.14	4.94	5.17	4.88	4.44	5.49	5.00	4.06
주말여가	6.89	5.63	5.83	6.96	6.70	8.94	6.52	6.70	7.46	7.59	6.79	8.42	7.00	6.18	7.25	6.26	5.68

16 구군별 휴대폰 사용 시간을 보면, 모든 지역에서 주말 여가활동의 소요시간이 평일 여가활동 소요시간보다 길며, 대략적으로 2시간 정도 차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평일 휴대폰 사용시간과 평일 여가시간은 각각 2.92시간, 3.18시간으로, 시간의 거의 동일하다. 주말 휴대폰 사용시간과 주말 여가시간은 각각 4.96시간, 6.89시간으로, 약 1.5시간의 차를 보이고 있다.



<그림 14> 구군별 휴대전화 평균 사용시간(평일, 주말 단위)

<표 67> 휴대전화 중독예방교육 경험 여부

구분	빈도	비율(%)
네	1182	95.8
아니오	52	4.2
계	1234	100.0

휴대전화 관련 중독 예방교육의 '경험이 있는 학생'은 1182명(95.8%), '경험이 없는 학생'은 52명(4.2%)로 경험이 있는 학생이 경험이 없는 학생보다 약 19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8> 휴대전화 중독예방교육 만족도

구분	N	평균	100점 환산 점수	표준편차
휴대전화 중독예방교육 만족도	1182	2.72	54.33	0.986

휴대전화 중독예방교육 만족도를 '전혀 효과가 없다(1점), 효과가 없다(2점), 보통이다(3점), 효과가 있다(4점), 매우 효과가 있다(5점)'의 리커트 5점 척도로 점수화하였다. 그 결과 휴대전화 중독예방교육 평균 만족도 점수는 2.72점 (100점 환산 점수 54.33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69>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과다이용으로 인한 어려움 경험 여부

구분	빈도	비율(%)
네	117	9.3
아니오	1143	90.7
계	1260	100.0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과다이용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은 학생'이 1143명(90.7%)로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과다이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 117명(9.3%)보다 10배 정도 차이 남을 알 수 있다.

<표 70>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유료결제 경험

구분	빈도	비율(%)
네	410	32.8
아니오	839	67.2
계	124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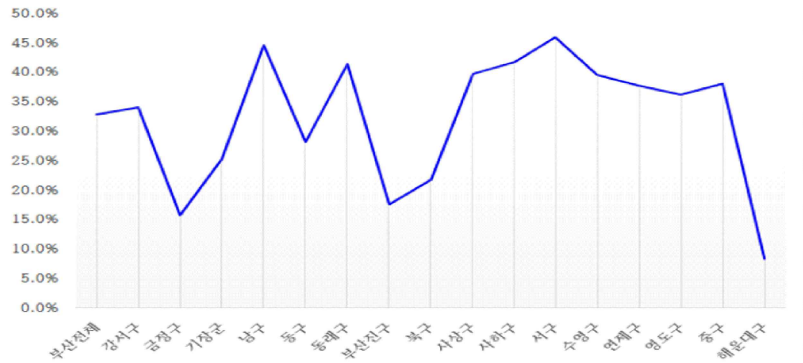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유료결제 '경험이 있는 학생'이 410명(32.8%), '경험이 없는 학생'이 839명(67.2%)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71> 구군별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유료결제 경험 (%)

%	전체	강서구	금정구	기장군	남구	동구	동래구	부산진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수영구	연제구	영도구	중구	해운대구
있다	32.8	34.1	15.8	25.3	44.6	28.2	41.4	17.6	21.7	39.8	41.7	45.9	39.5	37.8	36.2	38.0	8.3

없다 || 67.2 65.9 84.2 74.7 55.4 71.8 58.6 82.4 78.3 60.2 58.3 54.1 60.5 62.2 63.8 62.0 91.7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유료결제 경험을 구군별로 살펴보면, 모든 지역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유료결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유료결제 경험이 있는 청소년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구(45.9%)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해운대구(8.3%)로 조사되었다.



<그림 15> 구군별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유료결제 경험 유 (%)

<표 72>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평균 결제금액

구분	N	평균(원)	표준편차(원)
1일 최대 결제 금액	395	484039.24	5867342.800
한 달 평균 결제 금액	221	73182.81	504371.031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1일 최대 결제 금액의 평균금액은 약 484,039원이고, 한 달 평균 결제 금액의 평균금액은 약 73,182원이다.

<표 73> 구군별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평균 결제금액

구분	1회 최대 많이 결제한 금액	한 달 평균 결제 금액
전체	484039.24	73182.81
강서구	560827.59	30733.33
금정구	13291.67	71000.00
기장군	28631.58	18187.50
남구	32121.62	12250.42
동구	28100.00	15816.67
동래구	27363.89	19696.19
부산진구	60846.15	41200.00
북구	22722.22	11625.00
사상구	45437.50	70439.13
사하구	24928.57	24341.67
서구	4564163.89	484363.50
수영구	19718.75	17615.38
연제구	25785.71	77035.71
영도구	58041.67	8730.77
중구	30537.04	33583.33
해운대구	65000.00	122500.00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결제 금액을 구군별로 비교해보니 '1회 최대 많이 결제한 금액' 평균은 서구가 4,564,163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정구가 13,291원으로 가장 낮았다. '한 달 평균 결제금액'의 경우, 서구가 484,363원으로 가장 높았고, 영도구가 8,730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6. 청소년의 인권과 권리

<표 74> 차별 경험 점수

구분	N	평균	100점 환산 점수	표준편차
차별 경험	1266	1.83	36.67	0.725

차별 경험의 평균 점수는 1.83점 (100점 환산 점수 36.67점)으로 청소년들의 차별 경험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5> 차별 경험 문항별 평균

문 항 설 명	N	평균	표준편차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경험했다.	1266	2.17	1.255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을 경험했다.	1265	2.33	1.276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을 경험했다.	1266	2.28	1.258
가정형편이나 부모님의 직업 때문에 차별을 경험했다.	1265	1.46	0.794
외모(예. 키가 작다, 뚱뚱하다, 못생겼다 등) 때문에 차별을 경험했다.	1266	2.00	1.161
부모님이 안계시거나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는 경우 이를 이유로 차별을 경험했다.	1265	1.29	0.672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경험했다.	1265	1.31	0.731

차별 경험의 문항별 평균에서 '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을 경험했다'가 2.33점으로 차별정도가 가장 높았으며,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는 경우 이를 이유로 차별을 경험했다'가 1.29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76> 구군별 차별 경험 평균

구분	주위사람으로부터 겪은 차별 정도의 평균(5점 척도)																
	부산 전체	강서구	금정구	기장군	남구	동구	동래구	부산진 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수영구	연제구	영도구	중구	해운대 구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경험했다	2.17	1.84	2.48	2.21	2.16	2.04	2.18	2.41	2.26	2.00	1.97	2.18	1.91	2.50	2.15	2.21	2.12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을 경험했다	2.33	1.98	2.18	2.40	2.36	2.06	2.66	2.47	2.44	1.96	2.42	2.39	2.29	2.71	2.13	2.48	2.16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을 경험했다	2.28	1.96	2.40	2.20	2.35	2.14	2.26	2.55	2.31	2.04	2.49	2.32	2.04	2.67	2.03	2.49	2.16
가정형편이나 부모님의 직업 때문에 차별을 경험했다	1.46	1.38	1.47	1.35	1.35	1.41	1.51	1.43	1.49	1.29	1.44	1.76	1.44	1.63	1.42	1.55	1.43
외모 때문에 차별을 경험했다	2.00	1.75	1.84	1.99	2.00	1.94	2.02	2.11	1.79	1.83	2.00	2.14	2.07	2.20	1.92	2.21	2.33
부모님이 안 계신가나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는 경우 이를 이유로 차별을 경험했다	1.29	1.26	1.30	1.19	1.28	1.32	1.23	1.27	1.32	1.23	1.15	1.47	1.24	1.35	1.14	1.39	1.65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경험했다	1.31	1.31	1.36	1.15	1.28	1.30	1.31	1.38	1.36	1.16	1.20	1.40	1.35	1.44	1.25	1.30	1.47

차별정도의 평균이 1점대부터 2점대까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경험했다’문항의 평균점수를 구군별로 조사한 결과, 금정구가 2.4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강서구가 1.84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을 경험했다’문항의 평균점수를 구군별로 비교한 결과, 연제구가 2.71점으로 가장 높았고 사상구가 1.96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을 경험했다’문항의 경우 연제구의 평균점수가 2.6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강서구의 평균점수는 1.96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정형편이나 부모님의 직업 때문에 차별을 경험했다’문항의 평균점수를 구군별로 조사한 결과, 동래구가 2.66점으로 가장 높았고 서구가 1.44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외모 때문에 차별을 경험했다’문항의 평균점수를 구군별로 비교한 결과, 해운대구가 2.3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강서구가 1.75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모님이 안 계신가나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는 경우 이를 이유로 차별을 경험했다’문항의 평균점수를 구군별로 비교한 결과, 해운대구가 1.65점으로 지역 중 가장 높게 나타났고 영도구가 1.14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경험했다’문항의 평균점수를 구군별로 비교한 결과, 해운대구가 1.47점으로 지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기장군이 1.15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문항의 평점점수를 구군별로 비교한 결과, 서구가 1.7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사상구가 1.29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외모 때문에 차별을 경험했다’문항의 평균점수를 비교한 결과, 해운대구가 2.3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강서구가 1.75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모님이 안 계신가나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는 경우 이를 이유로 차별을 경험했다’문항의 평균점수를 구군별로 비교한 결과 해운대구가 1.65점으로 지역 중 가장 높게 나타났고 영도구가 1.14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경험했다’문항의 평균점수를 구군별로 비교한 결과, 해운대구가 1.47점으로 지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기장군이 1.15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77> 차별 경험 점수의 인구통계학적 비교

구분	N	차별 경험			
		평균	표준편차	100점 환산	t값
성별	남	601	1.73	0.715	34.56
	여	665	1.93	0.721	38.58
학교 급	중	594	1.78	0.745	35.66
	고	672	1.88	0.704	37.56
가족거주	부모님	1058	1.83	0.714	36.53
	그 외	208	1.87	0.777	37.40

\*p<0.05, \*\*p<0.01, \*\*\*p<0.001

성별, 학교 급, 부모님과의 거주유무에 따른 차별 경험 정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이 때, 차별 경험 문항은 5점 만점으로 즉,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별로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어느 정도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로 점수화하였다. 그 결과 차별 경험 평균 점수는 1.83점이고,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36.67점이다.

성별에 따른 차별 경험 정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t 값이 -4.964로 유의수준 0.05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차별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급에 따른 차별 경험 정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t 값이 -2.329로 유의수준 0.05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차별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님과의 거주유무에 따른 차별 경험 정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t 값이 -0.754로 유의수준 0.05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78> 사생활 보호 점수

구분	N	평균	100점 환산 점수	표준편차
사생활 보호	1263	3.81	76.14	0.871

사생활 보호는 3.81점 (100점 환산 점수 76.14점) 으로 청소년들의 사생활 보호는 보통 수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79> 사생활 보호 문항별 평균

문항 설명	N	평균	표준편차
나의 알리고 싶지 않은 개인정보/경계수준, 가족사항, 성적 등을 다른사람들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1263	3.92	1.257
선생님은 내 동의하에 소지품을 검사한다.	1262	3.47	1.438
부모님은 내 친구나 이성관계에 대해 나의 의견을 존중해준다.	1261	3.97	1.121
부모님은 나만의 공간(예, 내 방, 내 책상 등)을 존중해준다.	1261	3.84	1.192
선생님, 부모님은 나의 휴대전화 이용, 컴퓨터 사용을 감시하지 않는다.	1261	3.51	1.304
선생님과 상담한 내용은 나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1260	4.13	1.071

사생활 보호의 문항별 평균에서 ' 상담한 내용은 나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문항의 점수가 4.13점으로 가장 높았고, '선생님은 내 동의하에 소지품을 검사한다'가 3.47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80> 구군별 사생활 보호 평균

구분	사생활 보호 평균(5점 척도)																
	부산전체	강서구	금정구	기장군	남구	동구	동래구	부산진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수영구	연제구	영도구	중구	해운대구
선생님은 나의 알리고 싶지 않은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3.92	3.47	4.14	3.66	4.17	3.72	3.70	4.41	3.91	4.10	4.01	3.89	3.87	3.72	3.88	3.93	4.31
선생님은 내 동의하에 소지품을 검사한다	3.47	2.98	3.74	3.51	3.78	3.23	3.52	3.47	3.56	3.76	3.58	3.47	2.89	3.29	3.73	3.23	4.15
부모님은 내 친구나 이성관계에 대해 나의 의견을 존중해준다	3.97	3.93	4.18	3.76	4.17	4.00	3.69	4.04	4.17	4.13	4.01	3.86	3.95	3.86	3.88	3.76	4.23
부모님은 나만의 공간을 존중해준다	3.84	3.82	4.09	3.80	3.96	3.86	3.65	3.95	4.00	3.92	3.94	3.64	3.73	3.48	3.83	3.82	4.00
선생님, 부모님은 나의 휴대전화 이용, 컴퓨터 사용을 감시하지 않는다	3.51	3.43	3.62	3.48	3.31	3.72	3.19	3.87	3.84	3.48	3.22	3.58	3.49	3.11	3.63	3.42	3.85
선생님과 상담한 내용은 나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4.13	4.02	4.32	4.18	4.36	4.03	4.07	4.24	4.21	4.19	4.29	4.08	4.00	3.93	4.24	3.93	3.94

사생활 보호 평균점수는 3점대에서 4점대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생님은 나의 알리고 싶지 않은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문항의 평균점수를 구군별로 비교한 결과 부산진구의 평균점수가 4.41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강서구의 평균점수가 3.47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생님은 내 동의하에 소지품을 검사한다’ 문항의 평균점수를 구군별로 비교한 결과 해운대구가 4.15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강서구가 2.98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모님은 내 친구나 이성 관계에 대해 나의 의견을 존중해준다’문항의 평균점수를 비교한 결과, 가장 평균점수가 높았던 지역은 해운대구(4.23점)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동래구(3.69점)로 나타났다. ‘부모님은 나만의 공간을 존중해준다’문항의 평균점수를 비교한 결과, 금정구가 4.09점으로 가장 높았고 연제구가 3.48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선생님, 부모님은 나의 휴대전화 이용, 컴퓨터 사용을 감시하지 않는다’ 문항의 평균점

구군별로 비교한 결과, 부산진구가 3.87점으로 가장 높았고 연제구가 3.11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생님과 상담한 내용은 나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문항의 평균점수를 구군별로 비교한 결과, 남구가 4.36점으로 가장 높으며 연제구와 중구가 3.93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81> 사생활 보호 점수의 인구통계학적 비교

구분		N	사생활 보호			
			평균	표준편차	100점 환산	t값
성별	남	601	3.75	0.919	75.05	-2.125 <sup>*</sup>
	여	662	3.86	0.823	77.14	
학교 급	중	594	3.83	0.876	76.57	0.820
	고	669	3.79	0.867	75.77	
가족	부모님	1055	3.80	0.866	76.09	-0.272
거주	그 외	208	3.82	0.900	76.45	

\*p<.05, \*\*p<.01, \*\*\*p<.001

성별, 학교급, 부모님과 함께 거주유무에 따른 사생활 보호 정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이 때, 사생활 보호 문항은 5점 만점으로 즉,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별로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어느 정도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로 점수화하였다. 그 결과 사생활 보호 평균 점수는 3.81점이고,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76.14점이다.

성별에 따른 사생활 보호 정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t값이 -2.125로 유의수준 0.05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사생활 보호에 더 힘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급에 따른 사생활 보호 정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t값이 0.820로 유의수준 0.05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유무에 따른 사생활 보호 정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t값이 -0.272로 유의수준 0.05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82> 청소년의 권리 문항별 빈도

	N	빈도		비율(%)	
		네	아니오	네	아니오
권리에 대해 설명된 자료를 제공 받은 적 있다.	1262	655	607	51.9	48.1
나의 권리에 대해 교육을 받은 적 있다.	1264	859	405	68.0	32.0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정책홍보자료를 제공받은 적 있다.	1264	556	708	44.0	56.0
나의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상담 및 구제를 받을 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은 적 있다.	1259	592	667	47.0	53.0

'나의 권리에 대해 설명된 자료를 제공 받은 적 있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655명(51.9%), '나의 권리에 대해 교육을 받은 적 있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859명(68.0%),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정책홍보자료를 제공 받은 적 있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708명(44.0%), '나의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상담 및 구제를 받을 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은 적 있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592명(47.0%)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83> 표현의 자유 점수

구분	N	평균	100점 환산 점수	표준편차
표현의 자유	1266	3.35	67.07	0.989

표현의 자유는 3.35점 (100점 환산점수 67.07점) 으로 청소년들의 표현의 자유는 보통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84> 표현의 자유 문항별 평균

문 항 설 명	N	평균	표준편차
학교에서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솔직하게 말할 수 있다.	1266	3.84	1.073
내가 사는 동네에서 내 의견을 말할 기회가 있다.	1266	3.30	1.233
내가 사는 지역의 정책에 대해 나의 의견을 말할 기회가 있다.	1266	2.97	1.307
인터넷 게시판 등에 나의 의견을 자유롭게 올린다.	1266	3.30	1.278

표현의 자유의 문항별 평균에서 '학교에서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솔직하게 말할 수 있다.' 문항이 3.84점으로 가장 높았고, '내가 사는 지역의 정책에 대해 나의 의견을 말할 기회가 있다.' 문항이 2.97점으로 가장 낮았다.

<표 85> 구군별 표현의 자유 평균

구분	표현의 자유 평균(5점 척도)																
	부산 전체	강서구	금정구	기장군	남구	동구	동래구	부산진 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수영구	연제구	영도구	중구	해운대 구
학교에서 나의 생각을 자유 롭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다	3.84	3.89	3.94	3.68	3.96	3.92	3.92	3.93	3.85	3.88	3.68	3.81	3.91	3.58	3.90	3.75	3.76
내가 사는 동네에서 내 의견을 말 할 기회가 있다	3.30	3.55	3.32	3.26	3.27	3.27	3.39	3.48	3.31	3.30	3.36	3.02	3.49	3.04	3.07	3.35	3.33
내가 사는 지역의 정책에 대해 나의 의견을 말할 기회가 있었다	2.97	3.29	3.12	2.95	3.00	2.92	3.10	2.96	2.98	2.87	2.79	2.89	2.96	2.70	2.88	3.07	2.96
인터넷 게시판 등에 나의 의견을 자유롭게 올린다	3.30	3.37	3.19	3.40	3.47	3.23	3.30	3.46	3.35	3.14	3.19	3.40	3.57	2.99	3.18	3.31	3.18

표현의 자유 평균점수가 2-3점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솔직하게 말할 수 있다’ 문항의 평균점수를 구군별로 비교한 결과, 남구의 평균 점수가 3.96점으로 가장 높으며 기장군과 사하구의 평균점수가 3.68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내가 사는 동네에서 내 의견을 말할 기회가 있다’ 문항의 평균점수를 구군별로 비교한 결과 강서구가 3.55점으로 가장 높은 반면, 서구는 3.02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내가 사는 지역의 정책에 대해 나의 의견을 말할 기회가 있었다’ 문항의 경우,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강서구(3.29점)였으며, 가장 낮은 지역은 연제구(2.70점)로 조사되었다. ‘인터넷 게시판 등에 나의 의견을 자유롭게 올린다’ 문항의 구군별 평균점수를 비교한 결과, 수영구가 3.5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연제구가 2.99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86> 표현의 자유 점수의 인구통계학적 비교

	N	표현의 자유			
		평균	표준편차	100점 환산	t값
남	602	3.44	0.995	68.79	2.957**
여	664	3.28	0.979	65.50	
중	594	3.49	1.005	69.87	4.761***
고	672	3.23	0.959	64.59	
부모님	1058	3.38	0.989	67.65	2.361*
그 외	208	3.21	0.978	64.11	

\*p<.05, \*\*p<.01, \*\*\*p<.001

성별, 학교 급, 부모님과 거주유무에 따른 표현의 자유 정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이 때, 표현의 자유 문항은 5점 만점으로 즉, 전혀 그렇지 않다(1), 별로 그렇지 않다(2), 보통이다(3), 어느 정도 그렇다(4), 매우 그렇다(5)로 점수화하였다. 그 결과 표현의 자유 평균 점수는 3.35점이고,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67.07점이다.

성별에 따른 표현의 자유 정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t값이 2.957로 유의수준 0.05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표현의 자유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급에 따른 표현의 자유 정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t값이 4.761로 유의수준 0.05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표현의 자유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모님과 거주 유무에 따른 표현의 자유 정도 차이는 t값이 2.361로 유의수준 0.05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있었고, ‘부모님과 거주’하는 청소년이 ‘그 외’ 부모님과 거주하지 않는 청소년보다 표현의 자유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7. 청소년의 참여활동

<표 87> 청소년 참여활동별 점수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100점 환산
청소년 정책 참여 활동	1268	2.59	1.021	51.88
청소년 경제 참여 활동	1268	2.64	0.986	52.71
청소년 사회 참여 활동	1268	2.73	0.986	54.67
청소년 문화 참여 활동	1267	2.95	0.989	59.06
청소년 교육현장 참여 활동	1267	2.90	0.996	58.09

청소년 참여 활동은 5점 만점으로 즉, 전혀 그렇지 않다(1), 별로 그렇지 않다(2), 보통이다(3), 어느 정도 그렇다(4), 매우 그렇다(5)로 점수화하였다.

‘청소년 정책참여 활동’은 2.59점 (100점 환산 점수 51.88점), ‘청소년 경제참여 활동’ 점수는 2.64점 (100점 환산 점수 52.80점), ‘청소년 사회참여 활동’은 2.73점 (100점 환산 점수 54.60점), ‘청소년 문화 참여 활동’은 2.95점 (100점 환산 점수 59.00점), ‘청소년 교육현장참여 활동’은 2.90점 (100점 환산 점수 58.00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88> 구군별 청소년 정책참여활동 평균 점수

구분	정책참여 활동 평균(5점 척도)																
	부산 전체	강서구	금정구	기장군	남구	동구	동래구	부산진 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수영구	연제구	영도구	중구	해운대 구
나는 청소년의 정책참여 활동에 관해 잘 알고 있다	2.61	2.80	2.55	2.79	2.49	2.46	2.75	2.79	2.67	2.57	2.63	2.72	2.62	2.24	2.44	2.34	2.98
내가 거주하는 지역의 청소년정책참여 활동에 대해 알리는 홍보는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다	2.51	2.81	2.72	2.59	2.53	2.34	2.61	2.40	2.62	2.49	2.44	2.62	2.61	2.06	2.28	2.41	2.55
내가 거주하는 지역은 청소년의 정책참여 활동과 관련된 제도,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다	2.60	2.91	2.80	2.71	2.64	2.35	2.67	2.59	2.77	2.59	2.50	2.73	2.71	2.20	2.35	2.51	2.47
내가 거주하는 지역의 학교는 청소년 정책참여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65	2.97	2.86	2.65	2.77	2.42	2.66	2.54	2.78	2.60	2.65	2.74	2.73	2.18	2.39	2.63	2.90
내가 거주하는 지역은 다양한 단체가 청소년 정책참여 활동을 도와주고 있다	2.71	2.94	2.89	2.75	2.83	2.55	2.69	2.69	2.79	2.71	2.68	2.76	2.73	2.20	2.43	2.75	2.98
나는 내가 거주하는 지역의 청소년 정책참여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2.47	2.83	2.64	2.39	2.59	2.37	2.51	2.46	2.62	2.46	2.42	2.59	2.54	2.02	2.17	2.34	2.59

청소년 정책참여 활동 평균 점수가 2점대에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정책참여활동에 대해 잘 알고 있다’문항의 구군별 평균점수를 비교한 결과, 해운대구가 2.98점으로 지역 중 가장 높았으며 수영구가 2.24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거주하는 지역의 청소년 정책참여활동에 대해 알리는 홍보는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다’문항의 평균점수를 구군별로 비교한 결과, 강서구가 2.8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연제구가 2.06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거주하는 지역은 청소년정책참여

와 관련된 제도,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다’문항의 구군별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강서구가 2.9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연제구가 2.20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거주하는 지역의 학교는 청소년 정책 참여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문항의 평균점수를 구군별로 비교한 결과, 강서구가 2.97점으로 가장 높았고 연제구가 2.18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다양한 단체가 거주하는 지역의 청소년 정책참여 활동을 도와주고 있다’문항의 평균점수를 살펴본 결과, 해운대구가 2.9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연제구가 2.20점으로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나는 내가 거주하는 지역의 청소년 정책참여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문항의 구군별 평균점수를 조사한 결과, 강서구가 2.8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연제구가 2.02점으로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표 89> 구군별 청소년 경제참여활동 평균 점수

구분	정책참여 활동 평균(5점 척도)																
	부산 전체	강서구	금정구	기장군	남구	동구	동래구	부산진 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수영구	연제구	영도구	중구	해운대 구
나는 청소년의 정책참여 활동에 관해 잘 알고 있다	2.61	2.80	2.55	2.79	2.49	2.46	2.75	2.79	2.67	2.57	2.63	2.72	2.62	2.24	2.44	2.34	2.98
내가 거주하는 지역의 청소년정책참여 활동에 대해 알리는 홍보는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다	2.51	2.81	2.72	2.59	2.53	2.34	2.61	2.40	2.62	2.49	2.44	2.62	2.61	2.06	2.28	2.41	2.55
내가 거주하는 지역은 청소년의 정책참여 활동과 관련된 제도,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다	2.60	2.91	2.80	2.71	2.64	2.35	2.67	2.59	2.77	2.59	2.50	2.73	2.71	2.20	2.35	2.51	2.47
내가 거주하는 지역의 학교는 청소년 정책참여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65	2.97	2.86	2.65	2.77	2.42	2.66	2.54	2.78	2.60	2.65	2.74	2.73	2.18	2.39	2.63	2.90
내가 거주하는 지역은 다양한 단체가 청소년 정책참여 활동을 도와주고 있다	2.71	2.94	2.89	2.75	2.83	2.55	2.69	2.69	2.79	2.71	2.68	2.76	2.73	2.20	2.43	2.75	2.98



나는 내가 거주하는 지역의 청소년 정책참여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2.47	2.83	2.64	2.39	2.59	2.37	2.51	2.46	2.62	2.46	2.42	2.59	2.54	2.02	2.17	2.34	2.59
--	------	------	------	------	------	------	------	------	------	------	------	------	------	------	------	------	------

청소년 경제참여 활동 평균 점수가 2점대에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경제참여 활동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문항의 구군별 평균점수를 비교한 결과, 강서구가 2.9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연제구가 2.17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거주하는 지역의 청소년 경제참여 활동에 대해 알리는 홍보는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다' 문항의 평균점수를 구군별로 비교한 결과, 강서구가 2.9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연제구가 2.12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거주하는 지역에서 청소년 경제참여와 관련된 제도,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다' 문항의 구군별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강서구가 2.9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연제구가 2.18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거주하는 지역의 학교는 청소년 경제참여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문항의 평균점수를 구군별로 비교한 결과, 강서구가 2.90점으로 가장 높았고 연제구가 2.14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다양한 단체가 거주하는 지역의 청소년 경제참여 활동을 도와주고 있다' 문항의 평균점수를 살펴본 결과, 강서구가 2.9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연제구가 2.19점으로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나는 내가 거주하는 지역의 청소년 경제참여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문항의 구군별 평균점수를 조사한 결과, 강서구가 2.8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연제구가 2.07점으로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경제참여활동 모든 문항에 대해 강서구가 평균 점수가 가장 높았고, 연제구가 평균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90> 구군별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평균 점수

구분	사회참여 활동 평균(5점 척도)																
	부산 전체	강서구	금정구	기장군	남구	동구	동래구	부산진 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수영구	연제구	영도구	중구	해운대 구
나는 청소년의 사회참여 활동에 관해 잘 알고 있다	2.79	2.91	2.76	2.73	2.76	2.86	2.90	3.17	2.87	2.63	2.81	2.75	2.72	2.30	2.63	2.85	3.02
내가 거주하는 지역의 청소년 사회참여 활동에 대해 알리는 홍보는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다	2.69	2.83	2.66	2.66	2.71	2.80	2.77	2.71	2.86	2.67	2.60	2.85	2.66	2.20	2.50	2.79	2.78
내가 거주하는 지역은 청소년의 사회참여 활동과	2.75	2.86	2.75	2.85	2.76	2.77	2.86	2.83	2.92	2.76	2.65	2.79	2.71	2.29	2.56	2.79	2.88

관련된 제도, 프로그램이 많다																	
내가 거주하는 지역의 학교는 청소년 사회참여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77	2.90	2.75	2.75	2.80	2.80	2.83	2.87	2.91	2.81	2.76	2.84	2.76	2.28	2.51	2.77	2.96
내가 거주하는 지역은 다양한 단체가 청소년 사회참여 활동을 도와주고 있다	2.76	2.84	2.78	2.65	2.80	2.90	2.82	2.81	2.93	2.73	2.67	2.86	2.72	2.30	2.51	2.82	3.18
나는 내가 거주하는 지역의 청소년 사회참여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2.64	2.80	2.67	2.64	2.70	2.80	2.67	2.78	2.76	2.53	2.47	2.65	2.66	2.17	2.44	2.55	3.00

구군별 청소년 사회참여 활동 평균 점수가 대부분 2점대에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사회참여 활동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문항의 구군별 평균점수를 비교한 결과, 부산진구가 3.17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연제구가 2.30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거주하는 지역의 청소년 사회참여 활동에 대해 알리는 홍보는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다' 문항의 평균점수를 구군별로 비교한 결과, 북구가 2.8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연제구가 2.20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거주하는 지역에서 청소년 사회참여와 관련된 제도,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다' 문항의 구군별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해운대구가 2.8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연제구가 2.29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거주하는 지역의 학교는 청소년 사회 참여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문항의 평균점수를 구군별로 비교한 결과, 해운대구가 2.96점으로 가장 높았고 연제구가 2.28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다양한 단체가 거주하는 지역의 청소년 사회참여 활동을 도와주고 있다' 문항의 평균점수를 살펴본 결과, 해운대구가 3.1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연제구가 2.30점으로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나는 내가 거주하는 지역의 청소년 사회참여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문항의 구군별 평균점수를 조사한 결과, 해운대구가 3.0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연제구가 2.17점으로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사회참여 활동에 관한 모든 문항에 대해 연제구의 평균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91> 구군별 청소년 문화참여 활동 평균 점수

구분	문화참여 활동 평균(5점 척도)																
	부산 전체	강서구	금정구	기장군	남구	동구	동래구	부산진 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수영구	연제구	영도구	중구	해운대 구
나는 청소년의 문화참여 활동에 관해 잘 알고 있다	3.02	3.02	3.11	3.01	3.09	3.15	3.05	3.37	3.14	2.93	2.93	2.85	2.93	2.55	2.93	3.08	3.20
내가 거주하는 지역의 청소년 문화참여 활동에 대해 알리는 홍보는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다	2.95	3.04	2.99	3.00	3.09	2.93	2.93	3.12	3.12	2.99	2.93	2.91	2.89	2.42	2.81	2.94	3.08
내가 거주하는 지역은 청소년의 문화참여 활동과 관련된 제도, 프로그램이 많다	2.98	3.01	2.97	2.98	3.18	3.00	3.01	3.19	3.15	2.99	2.96	2.99	2.86	2.48	2.86	3.00	3.12
내가 거주하는 지역의 학교는 청소년 문화참여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2.95	3.03	2.99	2.89	3.07	2.99	2.93	3.21	3.06	2.96	2.90	2.88	2.84	2.48	2.86	2.96	3.16
내가 거주하는 지역은 다양한 단체가 청소년 문화참여 활동을 도와주고 있다	2.96	2.99	3.07	2.91	3.09	3.04	3.00	2.97	3.16	2.95	2.96	2.94	2.86	2.45	2.82	2.96	3.27
나는 내가 거주하는 지역의 청소년 문화참여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2.86	2.87	2.95	2.87	3.01	2.92	2.93	2.99	2.97	2.84	2.79	2.80	2.80	2.41	2.72	2.80	3.14

청소년 문화참여 활동 평균 점수가 2-3점대에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문화참여 활동에 대해 잘 알고 있다’문항의 구군별 평균점수를 비교한 결과, 해운대구가 3.2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연제구가 2.55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거주하는 지역의 청소년 문화참여 활동에 대해 알리는 홍보는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다’문항의 평균점수를 구군별로 비교한 결과, 부산진구과 북구가 3.1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연제구가 2.42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거주하는 지역에서 청소년 문화참여 활동과 관련된 제도,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다’문항의 구군별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남구가 3.1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연제구가 2.48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거주하는 지역의 학교는 청소년 문화참여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문항의 평균점수를 구군별로 비교한 결과, 부산진구가 3.21점으로 가장 높았고 연제구가 2.48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다양한 단체가 거주하는 지역의 청소년 문화참여 활동을 도와주고 있다’문항의 평균점수를 살펴본 결과, 해운대구가 3.2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연제구가 2.45점으로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나는 내가 거주하는 지역의 청소년 문화참여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문항의 구군별 평균점수를 조사한 결과, 해운대구가 3.1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연제구가 2.41점으로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문화참여 활동에 관한 모든 문항에 대해 연제구의 평균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92> 구군별 청소년 교육현장참여 활동 평균 점수

구분	교육현장참여 활동 평균(5점 척도)																
	부산 전체	강서구	금정구	기장군	남구	동구	동래구	부산진 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수영구	연제구	영도구	중구	해운대 구
나는 청소년의 교육현장참여 활동에 관해 잘 알고 있다	2.94	2.99	2.83	3.05	2.91	2.97	3.09	3.28	3.03	2.87	2.93	2.87	2.81	2.55	2.83	2.86	3.27
내가 거주하는 지역의 청소년 교육현장참여 활동에 대해 알리는 홍보는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다	2.91	3.01	2.83	3.04	2.96	2.97	2.99	2.99	3.05	2.94	2.71	3.01	2.82	2.51	2.83	2.76	3.10
내가 거주하는 지역은 청소년의 교육현장참여 활동과 관련된 제도,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다	2.91	3.00	2.91	3.05	3.02	3.07	3.01	3.11	2.98	2.88	2.72	2.95	2.81	2.47	2.76	2.82	2.92
내가 거주하는 지역의 학교는 청소년 교육현장참여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93	3.01	2.89	3.06	2.99	3.01	3.06	3.11	3.12	2.90	2.83	3.00	2.84	2.43	2.75	2.82	3.04

내가 거주하는 지역은 학교 외에도 청소년의 교육현장 참여 활동을 도와주기 위해 다양한 단체들이 있다	2.90	2.97	3.00	2.84	3.05	3.04	3.00	3.03	3.08	2.92	2.68	2.98	2.74	2.43	2.72	2.76	3.22
나는 내가 거주하는 지역의 청소년 교육현장참여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2.83	2.97	2.87	2.96	2.89	2.90	3.01	3.08	3.02	2.75	2.67	2.80	2.75	2.41	2.60	2.61	3.02

청소년 교육현장참여 활동 평균 점수가 2-3점대에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교육현장 참여 활동에 대해 잘 알고 있다’문항의 구군별 평균점수를 비교한 결과, 부산진구가 3.2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연제구가 2.55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거주하는 지역의 청소년 교육현장 참여활동에 대해 알리는 홍보는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다’문항의 평균점수를 구군별로 비교한 결과, 해운대구가 3.1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연제구가 2.51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거주하는 지역에서 청소년 교육현장 참여와 관련된 제도,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다’문항의 구군별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부산진구가 3.1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연제구가 2.47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거주하는 지역의 학교는 청소년 교육현장 참여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문항의 평균점수를 구군별로 비교한 결과, 북구가 3.12점으로 가장 높았고 연제구가 2.43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다양한 단체가 거주하는 지역의 청소년 교육현장 참여활동을 도와주고 있다’문항의 평균점수를 살펴본 결과, 해운대구가 3.2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연제구가 2.43점으로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나는 내가 거주하는 지역의 교육현장 참여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문항의 구군별 평균점수를 조사한 결과, 부산진구가 3.0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연제구가 2.41점으로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교육현장 참여 활동에 관한 모든 문항에 대해 연제구의 평균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8. 청소년의 삶의 질

<표 93> 삶의 질 점수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100점 환산 점수
삶의 질	1264	6.51	1.518	81.33

삶의 질은 6.51 점 (100점 환산 점수는 81.33점) 으로 청소년들의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94> 삶의 질 문항별 평균

영역	문항 설명	N	평균	표준편차
	자기 관리, 가족관계, 주거생활 등	1264	7.20	1.802
진로	희망진로에 대한 지식, 진로계획, 진로준비 등	1264	5.89	2.031
사회관계	대인관계, 친구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등	1262	6.99	1.794
교육	교육성과, 교육지원, 학교만족도, 교육받을 권리 등	1264	6.47	1.972
환경	거주지역의 위생 및 청결도, 유해환경 등	1264	6.83	1.853
공공참여와 상호협력	정치참여, 청소년으로서 시민의 권리와 의무, 사회신평, 지역사회 소속감 등	1263	5.92	2.052
건강	개인의 신체건강, 충분한 수면, 식사의 규칙성 등	1263	6.49	2.096
주관적 만족 영역	자신감, 정서적 안정, 삶의 만족도 등	1264	6.56	2.107
안전	안전한 등하교 및 귀가길, 생활환경의 안전,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성 등	1264	6.91	1.953
학업과 생활과의 조화	충분한 여가활동, 낮은 학업 스트레스 등	1263	5.80	2.4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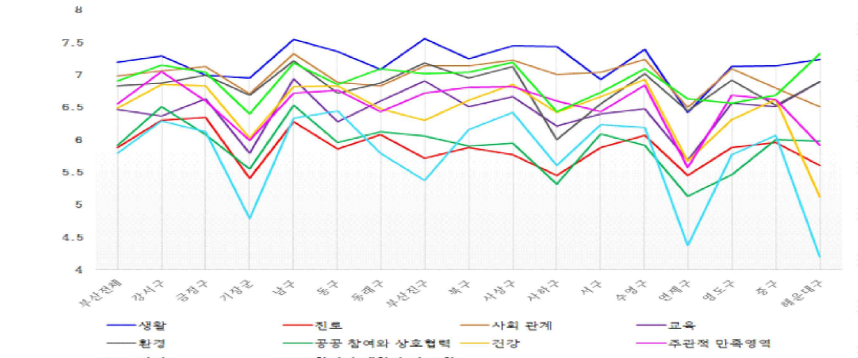
삶의 질의 문항별 평균에서 ‘생활’영역의 ‘자기 관리, 가족관계, 주거생활 등’ 문항이 7.20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대인관계, 친구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등’ 문항이 6.99점, ‘안전한 등하교 및 귀가길, 생활환경의 안전,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성 등’ 문항이 6.91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활동, 낮은 학업 스트레스 등’ 문항이 5.80점으로 가장 낮았다.

<표 95> 구군별 삶의 질 평균 점수

구분	생활	진로	사회 관계	교육	환경	공공 참여와 상호협력	건강	주관적 만족영역	안전	학업과 생활과 의 조화
전체	7.20	5.89	6.99	6.47	6.83	5.92	6.49	6.56	6.91	5.80
강서구	7.30	6.31	7.07	6.37	6.88	6.52	6.86	7.06	7.16	6.29
금정구	7.00	6.35	7.13	6.64	7.00	6.08	6.84	6.60	7.05	6.13
기장군	6.96	5.41	6.71	5.80	6.69	5.55	6.03	6.00	6.41	4.79
남구	7.55	6.28	7.33	6.95	7.22	6.54	6.82	6.72	7.19	6.34
동구	7.37	5.86	6.89	6.28	6.72	5.96	6.83	6.77	6.86	6.45
동래구	7.09	6.09	6.83	6.60	6.88	6.13	6.48	6.44	7.10	5.80
부산진구	7.56	5.72	7.14	6.91	7.19	6.06	6.31	6.72	7.02	5.38
북구	7.25	5.89	7.14	6.52	6.96	5.91	6.61	6.81	7.04	6.16
사상구	7.45	5.78	7.23	6.67	7.13	5.95	6.86	6.82	7.20	6.43
사하구	7.44	5.46	7.01	6.22	6.01	5.32	6.43	6.60	6.44	5.61
서구	6.94	5.89	7.04	6.40	6.56	6.10	6.67	6.44	6.74	6.24
수영구	7.40	6.07	7.24	6.48	7.02	5.92	6.93	6.85	7.10	6.20
연제구	6.43	5.46	6.50	5.69	6.45	5.14	5.68	5.58	6.64	4.37
영도구	7.13	5.89	7.10	6.57	6.92	5.47	6.32	6.69	6.57	5.78
중구	7.14	5.96	6.80	6.51	6.54	6.01	6.62	6.63	6.69	6.07
해운대구	7.24	5.61	6.51	6.90	6.90	5.98	5.12	5.92	7.33	4.20

‘(자기관리, 가족관계, 주거생활 등)’ 영역의 구군별 평균점수가 약 5-7점대로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생활’영역을 구군별로 비교했을 때, 기장군, 서구, 연제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평균 점수가 7점대로 나타났다. ‘생활’영역의 만족도 평균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진구(7.56점)이었으며, 가장 낮은 지역은 연제구(6.43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진로(희망진로에 대한 지식, 진로계획, 진로준비 등)’ 영역의 경우, 모든 지역이 5-6점대의 평균 점수로 나타났다. ‘진로’영역의 만족도 평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금정구(6.35점)이고, 가장 낮은 지역은 기장군(5.41점)으로 나타났다. ‘사회관계(대인관계, 친구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등)’ 영역의 경우, 구군별 만족도 평균은 6-7점대에 분포해있었다. ‘사회관계’를 구군별로 비교했을 때, 만족도 평균이 가장 높은 지역은 남구(7.33점)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연제구(6.50점)로 나타났다. ‘교육(교육성과, 교육지원, 학교만족도, 교육받을 권리)’ 영역의 경우, 구군별 만족도 평균은 기장군과 연제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6점대에 분포해있다. ‘교육’의 만족도평균을 구군별로 비교한 결과, 남구가 6.95점으로 가장 높았고 연제구가 5.69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환경(거주지역의 위생 및 청결도, 유해환경 등)’의 구군별 만족도 평균은 6-7점대에 분포해있다. ‘환경’의 만족도 평균을 비교한 결과, 만족도 평균이 가장 높은 지역은 남구(7.22점)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사하구(6.01점)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공공참여와 상호협력(정치참여, 청소년으로서 시민의 권리와 의무, 사회신평, 지역사회 소속감 등)’ 영역의 구군별 만족도 평균은 5-6점대에 분포해있었다. ‘공공참여와 상호협력’의 만족도 평균을 비교한 결과, 만족도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남구(6.54점)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연제구(5.14점)로 조사되었다. ‘건강(개인의 신체건강, 충분한 수면, 식사의 규칙성 등)’ 영역의 구군별 만족도 평균은 해운대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5점대에 분포해있다. ‘건강’의 만족도 평균을 비교한 결과, 만족도 평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수영구(6.93점)였고, 만족도 평균이 가장 낮은 지역은 해운대구(5.12점)로 나타났다. ‘주관적 만족영역(자신감, 정서적 안정, 삶의 만족도 등)’의 구군별 만족도 평균은 강서구, 연제구, 해운대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6점대에 분포해있다. ‘주관적 만족영역’의 만족도 평균을 비교한 결과, 만족도 평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서구(7.06점)이고, 가장 낮은 지역은 연제구(5.58점)으로 나타났다. ‘안전(안전한 등하교 및 귀가길, 생활환경의 안전,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성 등)’의 구군별 만족도 평균은 6-7점대에 모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의 만족도 평균을 구군별로 비교한 결과, 만족도 평균이 가장 높은 지역은 해운대구(7.33점)이고 가장 낮은 지역은 기장군(6.41점)으로 나타났다. ‘학업과 생활과의 조화(충분한 여가활동, 낮은 학업 스트레스 등)’ 영역의 구군별 만족도 평균은 기장군, 연제구, 해운대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5-6점대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과 생활과의 조화’만족도 평균을 구군별로 비교한 결과, 만족도 평균이 가장 높은 지역은 동구(6.45점)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해운대구(4.20점)로 나타났다.



<그림 16> 구군별 삶의 질 평균 점수

<표 96> 삶의 질 점수의 인구통계학적 비교

구분	N	삶의 질			
		평균	표준편차	100점 환산	t값
성별	남	602	6.76	1.499	5.828***
	여	662	6.27	1.498	
학교 급	중	593	6.86	1.461	7.932***
	고	671	6.20	1.500	
가족 거주	부모님	1058	6.53	1.517	0.968
	그 외	206	6.41	1.520	

\*p<.05, \*\*p<.01, \*\*\*p<.001

성별, 학교 급, 부모님과의 거주유무에 따른 삶의 질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이 때, 삶의 질 문항은 9점 만점으로 즉,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별로 그렇지 않다(3점), 보통이다(5점), 어느 정도 그렇다(7점), 매우 그렇다(9점)로 점수화하였다.

성별에 따른 삶의 질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t값이 5.828으로 유의수준 0.05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삶의 질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급에 따른 삶의 질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t값이 7.932로 유의수준 0.05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삶의 질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님과의 거주유무에 따른 삶의 질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t값이 0.968로 유의수준 0.05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97> 청소년 참여활동과 삶의 질의 상관관계

		1	2	3	4	5	6
삶의 질	1 삶의 질	1					
청소년 정책활동	2 정책참여활동	.350***	1				
	3 경제참여활동	.359***	.851***	1			
	4 사회참여활동	.326***	.759***	.809***	1		
	5 문화참여활동	.320***	.658***	.700***	.789***	1	
	6 교육현장참여활동	.352***	.630***	.695***	.776***	.771***	1

\*p<.05, \*\*p<.01, \*\*\*p<.001

5개 청소년 참여활동과 삶의 질의 pearson 상관분석을 시행한 결과 유의수준 0.05하에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하였고,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정책참여활동’과 ‘경제참여활동’의 상관계수가 0.851로 가장 높은 상관성을 나타냈고, 다음으로 ‘경제참여활동’과 ‘사회참여활동’의 상관계수가 0.809, ‘사회참여활동’과 ‘문화참여활동’의 상관계수가 각각 0.789인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질’과 ‘문화참여활동’의 상관계수가 0.320으로 가장 낮은 상관성을 나타냈다.

<표 98> 청소년 참여활동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구분		B	β	t값	VIF	F값	adj-	D-W
(상수)		5.333	-	37.793***	-			
인적 특성	성별 (남=0, 여=1)	-0.455	-0.150	-5.906***	1.010			
	학교 급 (중학교=0, 고등학교=1)	-0.498	-0.164	-6.426***	1.020			
	부모님 동거 여부 (아니오=0, 예=1)	-	0.018	0.714	1.001	79.010***	0.199	1.869
청소년 참여활동	정책참여 활동	0.262	0.176	5.388***	1.684			
	교육현장참여 활동	0.344	0.226	6.938***	1.667			
	경제참여 활동	-	0.077	1.474	4.288			
	사회참여 활동	-	-0.010	-0.204	3.599			
	문화참여 활동	-	0.056	1.332	2.802			

+p<.1, \*p<.05, \*\*p<.01, \*\*\*p<.001

청소년 삶의 질에 5개의 청소년정책활동(청소년의 정책참여 활동, 청소년의 경제참여 활동, 청소년의 사회참여 활동, 청소년의 문화참여 활동, 청소년의 교육현장참여 활동)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분석에서는 변수선택법 중 각 단계마다 변수들의 진입과 탈락을 결정하는 단계별(Stepwise) 방법을 사용하였다. 독립변수로는 인적특성인 성별, 학교 급, 부모님과거의 거주유무와 청소년 참여활동을 나타내는 정책참여 활동, 경제참여 활동, 사회참여 활동, 문화참여 활동, 교육현장참여 활동을 사용하였다. 이 때, 성별, 학교 급, 부모님과거의 거주유무와 같은 인적특성 변수들은 범주형이므로 가변수 처리하였다. 다중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79.010, p<0.001). 설명력(adj- )은 19.9%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수에 대한 VIF 값은 모두 10보다 작으므로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빈-왓슨(D-W) 통계량 값은 2에 근사한 값을 보이고 있어 다중회귀모형에 대한 잔차의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는데 자료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회귀분석 결과, 유의한 변수에는 성별, 학교 급, 정책참여 활동, 교육현장참여 활동이 있었고 그 외의 변수인 부모님 동거 여부, 경제참여 활동, 사회참여 활동, 문화참여 활동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 특성 중에서 성별과 학교 급은 각각 t=-5.906, t=-6.426으로 유의수준 0.05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0.150의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고등학생’은 ‘중학생’보다 0.164의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님과거의 동거 유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청소년 참여활동에 대한 5개 설명변수들 중에서 ‘정책참여 활동’, ‘교육현장참여 활동’이 각각 t=5.388, t=6.938로 유의수준 0.05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참여 활동’은 0.176, ‘교육현장참여활동’은 0.226의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참여 활동’, ‘사회참여 활동’과 ‘문화참여 활동’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2개의 청소년 참여활동 중에서 삶의 질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교육현장참여 활동’인 것으로 나타났다.